



남한강산

5

주제 105(2016)
루게 제 321호 월간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좀 천천히 숨엄하게 (♩=76)

작사 최준경
작곡 김동철

mf F Gm G7 C

1. 백 두 에 날리던 붉은기폭에 마치 와 낫과 붓 아로 새겼다 인

F D7 Gm C7 F *ff*

민 의 운명을 간직 한기발 혁명 의 폭풍을 헤쳐왔 어라 높

B^b Gm G7 C

이 날려라 우 - 리 의 당 기 - 천

F D7 Gm G7 C7 F

만 심 장 하나 - 같 이 뭉 쳐 나 간 - 다

2. 향도의 이 기발 따르는 길에
이 세상 못 넘을 령이 없어라
불구름 헤치고 락원 세우며
인민들 세기의 영웅되었네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백전백승 주체위업 펼쳐나간다

3. 해와 별 빛나는 맑은 하늘에
이 기발 세대를 이어 날린다
목숨은 버려도 우리 영원히
주체의 당기를 놓지 않으리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사회주의령마루에 길이 빛나라

차 례

승리만을 펼쳐갈 조선로동당	3
인민을 강력한 혁명의 주체로 키워	4
단 상	
시 《어머니》를 읊으며	5
인민의 다함없는 그 부름-어머니	6
수 기	
당은 어머니	11
당창건기념랍	12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14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해간다	18
자력자강이 안아온 결실	20
흑색있는 양어장	2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준엄한 봄	24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26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27
좌담회	
견결한 자강력체현자들로 키워주시는 손길	28
청년운동사적관	30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	32
하루일이 끝난 후	33
선망이 좋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36
운강 새들이 날아든다	38
함께 걷는 길	40



라선식뇌CT설비개발자들	42
조국의 품에 안겨	
생의 흔적을 남기다	43
편 지	
누님의 당부를 언제나 잊지 않으렵니다	45
	고향소식
터가 좋아 《명당》이런가	46
《백두산하늘아래 우리 삽니다》 (1)	48
시	
조사하의 숲은 노캐하네	50
인상기	
불멸의 꽃	51
조국의 벽찬 현실을 대할 때면	51
야 화	
충석정의 부부바위	52
민족의 향기	
남성들의 민족옷-바지저고리	52
	조선의 권법에 대하여 (2)
력사인물	
《아리랑》과 라운규	55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6)	56
조선속담 (격정)	
유모아	
덤배북청	41
상 식	
우리 나라의 만과 반도	49
고구려사절의 중앙아시아행차	50
왜 사람이 잠잘 때 빨리 크는가	55



새해 주체105(2016)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1월

승리만을 펼쳐갈 조선로동당

세계에는 력사를 자랑하는 당이 적지 않다. 하지만 조선로동당처럼 당의 창건자, 령도자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세기를 이어가며 그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당은 없다.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변함없이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곳곳이 실현해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조선로동당을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를 마련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색의 낮과 밤을 이어나가시며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등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집필발표하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의지대로 당을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으시었다.

그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고결한 충정과 순결한 의리를 지니시고 이 땅우에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숭고한 경륜을 아로새기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금수산태양궁전법이 채택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가장 숭엄하게 모시는 사업이 최상의 수

준에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는 당의 기본구호가 제정되고 그것이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불면불휴의 령도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새시대의 생눈길을 파감히 뚫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열어주신 자주, 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전진시킬 수 있었으며 사상과 신념, 령도풍모와 활동방식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그 면모를 일신할 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는 당을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그분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 후대관은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인민대중에 대한 열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의 글줄마다에도,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도 담겨져있고 우리 인민들이 절절히 부르는 《내 심장의 목소리》, 《인정의 세계》와 같은 노래들에도 어려있으며 어린이들의 행복의 요람인 육아원, 애육원들과 소년단야영소들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령도자의 인덕과 풍모가 숭고한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품으로 되고있다. 당은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이 되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기 위해 투쟁하고 인민은 고마운 당에 마음속진정을 다 아뢰며 충정으로 받드는 이것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참모습이고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녀이고 한생의 전부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 활동의 출발점으로, 근본초석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참다운 수령의 당이다.

위대한 력사와 전통이 굳건히 계승되는 당은 필승불패이다.

본사기자 강진성

인민을 강력한 혁명의 주체로 키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 대회를 맞는 인민의 가슴은 조선로동당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조선로동당은 창건후 70여성상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 력사적투쟁속에서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사회의 향도적력량이다.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과 전도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에 달려있다.

옳바른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고 인민대중을 강력한 주체로 묶어세워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는 당의 조직자적, 향도자적역할에 의하여 서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빛나게 개척되고 인민들의 참다운 리상과 행복이 꽃피나게 된다.

조선로동당은 옳바른 전략과 전술, 로선과 정책으로 인민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왔다. 당은 해방직후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주었으며 전후 재더미우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와 남들은 수백년이 걸린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짧은 기간에 실현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과 군건설로선,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을 비롯하여 당이 제시한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인민의 지향과 요구, 나라의 사회력사적조건과 구체적현실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승리만을 새겨왔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조선로동당이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친것은 변화되는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와 인민을 어떻게 이끌어나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준 귀감으로 된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극도에 이르렀을 때 당은 선군혁명로선을 빛나게 구현하여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승리만을 이룩하였으며 조국은 최악의 역경을 뚫고 강성국가어로 솟구쳐오르는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강력한 주체

단 상

시 《어머니》를 읊으며

얼마전이였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된 웅변모임에서 나는 서정시 《어머니》를 읊었다.

...

송구스러워라 이 어머니를
나에게 젓조차 변변히 먹여줄
수 없었던

한 시골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한다는것은

...

시의 구절을 읊어가는 나에게
는 지난해 조국의 최북단 라선시
에서 있는 일이 떠올랐다.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창건 70
돛 경축분위기로 흥성이던 8월
어느날 조국의 최북단 라선시에
레년에 보기도문 큰물피해가 덮
쳐들었다.

모두가 집없는 걱정보다 조국
앞에 닥쳐온 전쟁위험을 먼저 생
각하던 그때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소식이 온 나라에
알려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확대
회의에서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
휘사령부를 조직해주시고 수많
은 인민군군인들을 건설력량으
로 파견해주시였다는것이였다.

그때로부터 한달남짓한 기간
조국의 최북단 라선시에 전화위
복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은정어린 새 집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받
아안던 날 라선시 인민들은 이렇
게 격정을 터치였다.

《조선로동당이어, 그대는 어머
니! 어머니없이 우린 못살니다!》

어머니, 분명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는 불행에 빠진 자
식일수록 더욱 잠 못들며 온갖
정성을 다하는 어머니, 인민들
을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보살피는 어머니-조선로동당이
였다. 그 손길은 자식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어머니의 손길처
럼 부드러웠고 그 품은 꾸짖어
도 매질해도 달려가 안기는 어
머니품처럼 포근하고 따스했다.

돌이켜보면 인류력사의 갈피
에 수많은 당들이 존재하였지만
인민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르
는 당은 동서고금에 없었다.

오직 자식을 위해서라면 한몸
을 깡그리 불태우는 어머니처럼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그들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기 위해 아글
타글 애쓰는 조선로동당의 모습
을 우러르며 나는 연단에서 격정
을 터치였다.

...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
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목소리로
부르고 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
살아!

본사기자 전 민

로 키우고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세기적인 변
혁과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당은 인
민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조직동원하여야 모
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나
갈수 있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전체 인민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
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
이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어왔다. 지난 조국해방전
쟁에서의 위대한 승리와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으
로 단숨에 치달아오르게 한 전후의 천리마대고조,
로동당시대의 전성기를 펼친 1970년대와 1980년
대의 대진군은 당의 령도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일심단결은 사회주의위업을 이끌어오면서 조선
로동당이 이룩한 가장 고귀한 결실이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일심단결
을 이룩한것은 당의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그 어
떤 강적도 타승하고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가

는 당의 위대성이 있는것이다.

핵무기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단결의 위력
으로 조선로동당은 오늘과 래일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비약하는 현실을 펼쳐나가고있다.

주체혁명위업의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위력은
곧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령도이다.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늘 조선로동당의 진두에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향도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높은 존엄과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참으로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
아갈 때 인민은 그 어떤 강적도 두려울것이 없고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고있다.

사회과학원 김철웅

인민의 다함없는 그 부름-어머니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조국땅에 올라가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아기가 꿈을 꾸며 웃고있다. 어머니의 얼굴에 사랑이 넘친다. 고운 꿈을 지켜 어머니가 밤을 새우고있는줄 아기는 아는지...

아기는 줄곧 어머니의 다심한 사랑속에서 자랐다.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와 소년궁전, 대학교정과 사회현장들마다에서 자기의 꿈을 꽃피웠다. 인생의 절정에서 어제날의 아기는 심장으로 웨쳤다.

지금도 아이적목소리로 부르는 어머니, 그대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이라고. ...

물론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주인공은 없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조국인민들모두가 이야기의

주인공들이기때문이다. 하기에 그 품속에서 자라난 이 나라의 천만자식들은 지금 어머니당력사에 특기할 경륜으로 아로새겨질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크나큰 걱정과 환희속에 맞이하고 있는것이다.

세상에는 자기의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들이 많다. 그러나 당이 인민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고 그들의 어머니로 복무하는 당은 조선로동당밖에 없으며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당의 창건자이며 령도자들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와 충정의 인사를 드리는 인민도 조국인민밖에 없다.

그런것이다. 조국인민에게 있어서 어머니당-조선로동당은 곧 위대한 수령님들이시고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였던 우리 인민의 처지가 과연 어떠하였던가. 봉건통치배들은 정치라는 개념에 《목민》이라는 어휘를 써왔다. 집집승을 치는 일을 목축이라고 할 때 목민의 대상인 인민은 과연 어떤 처지에 놓여있었던가. 하물며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세월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착취사회에서 인민은 오랜 세월 마치고 낮과 붓을 들고 력사의 수레바퀴를 떠밀어왔건만 력사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력사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였다. 그러하였던 인민이 력사의 대상으로부터 력사의 주인으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당기에 마치고 낮과 붓을 아로새긴 인민의 참다운 향도자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을뿐아니라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신 그때부터였다.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에 있는 남산재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인민관에 대한 못 잊을 사연을 오늘도 전해주고있다.

남산재는 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있는 명당자리이다. 언제인가 어느 한 건축가가 남산재에 정부청사를 앉힐 설계도안을 준비해가지고



자력자강의 힘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해간다.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로 찾아간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반대라고, 동무들은 무엇때문에 이 좋은 자리에 정부청사를 앉히자고 하는가고 엄하게 책망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끼시던 남산재에 대학습당을 짓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김일성도서관》으로 부르자고 할 때에도 자신의 존함대신 《인민》이라는 두글자를

붙여 《인민대학습당》으로 부르도록 하시였다.
인민은 결코 저절로 하늘이 되는것이 아니다. 이처럼 자기 수령의 보살핌을 받으면 하늘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무지렁이가 되는것이 인민이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애의 전기간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 길에는 일요일과 명절날, 탄생일이 따로 없었다. 후

대들을 위해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와 대학을 찾으시였으며 공장과 농촌, 마을과 살림집, 병원 등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인민들에게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그이의 인민사랑이 그대로 구현된 조선로동당의 정치아래 조국에서는 무상치료, 무료교육제의 실시와 세금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같은 세상에 없는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되고 이 땅에서

는 누구나 그 인민적시책의 혜택아래 자기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며 참다운 삶을 누리고있다.
어머니당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는 조국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그대로 체현하시교 언제나 인민을 위



나라의 곳곳에 당의 사상과 정책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이 일떠섰다.

당은 어머니



한 헌신의 장정에서 크나큰 사랑의 서사시를 아로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숭엄히 안겨온다. 위대한 정치가, 령장이시기 전에 위대한 인간이신 **김정일**장군님. 참으로 그이로부터 어머니의 따뜻한 정과 열을 받아안은 사람들은 그 얼마였던가.

조국인민은 오늘도 얼음장을 타고 표류하던 처녀를 구원하던 그때를 잊지 않고있다.

그때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력한 구조대와 함께 직승기를 띄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처녀를 구원하여야 한다고, 구원하지 못하면 차라리 보고하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시며 끝끝내 사경에 처하였던 처녀를 구원해주시었다. 당시 기적적으로 구원된 딸을 부여안은 그의 어머니는 잃을줄 알았던 너를 당에서 두번다시 태어나게 해주었다고, 어머니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데 장군님께서 그런 어머니의 심정으로 너를 구원해주시었다고 오열을 터치였다.

그이께서는 병신자식일수록 더 속을 태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한사람이라도 뒤떨어질세라 마음쓰시며 엄중한 과오를 범한 일군들도 믿음과 정을 주시며 그들이 재생의 길을 다시 찾고 참다운 삶을 누려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뿐만 아니라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고, 인민을 위해서는 밀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고, 인민들에게 좋은것이 차례졌다는 보고를 받으면 만사름이 놓인다고 그리도 기뻐하신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관은 변함없이 펼쳐지고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비롯한 여러 기회에 하신 연설에서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가시려는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시었다. 그리고 그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현지도의 길에서 그 어느 단위를 찾으시여도, 그 누구를 만나시여도 인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는가,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리해야 한다, 인민들을 위

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할바에는 만점짜리로 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자고 말씀하시며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바로 그이께서 지니신 이런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어머니당으로서의 리념이 현실에 구현된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정서생활 거점들이 련이어 일떠섰다.

지금도 조국인민은 라선시에 전화위복의 기적이 펼쳐졌던 그때를 하나의 전설처럼 이야기한다. 당시 큰물로 인한 이곳의 피해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게다가 미제의 사측밀에 남조선군사파쑸도당의 도발로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였던 시기였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모든 중대사를 다 미루시고 피해복구사업에 모든 힘을 다하시었다. 그러시고도 하늘길, 배길을 달리시여 한창 건설중에도 그리고 새집들이를 앞둔 때에도 련이어 현지를 찾으시여 건설정형과 건설된 살림집상태를 세심히 알아보시고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기쁜 일이면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으며 보람이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매 세대들에 텔레비존수상기와 갖가지 의복류, 집기류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주도록 하시였으며 이제 닥쳐올 겨울의 추위를 걱정하시여 솜동복까지 보내주시었다.

진정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다 합친것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그이의 사랑의 세계, 인정의 세계앞에 피해지역인민들은 눈물절반, 웃음절반 머금으며 어머니-조선로동당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인민을 위해 존재하며 인민을 위해 가장 열화와 같은 사랑을 주는 어머니품-조선로동당, 그런 위대한 당은 인민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기마련이다.

하기에 오늘 조국인민은 위대한 어머니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며 날에날마다 사회주의경제강국과 문명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은 어머니당에 드리는 천만자식들의 보답의 마음, 충정의 선물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조선중앙통신

저는 중구역 련화2동에서 살고있는 박금영입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보니 조국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안고 살아온 지난날이 돌이켜지고 또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어머니당의 참모습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사실 저나 저의 가정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놓았거나 이름을 남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고 평범한 저의 가정을 통하여 당을 어머니로 믿고 따르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싶어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과 불, 철과 철이 부딪치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제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때에 저와 같은 피덩이가 어떻게 살아날수 있었을가 하고 생각할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엄혹한 전쟁속에서도 나라에서 펼쳐는 무상치료제의 혜택아래 병 한번 앓지 않고 성장의 걸음마를 떼었습니다. 또 공부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나라의 무료교육제의 혜택아래 돈 한푼내지 않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주의조국의 파사로운 품속에서 고생과 불행을 모르고 살아온 저는 또 인정깊고 마음이 후더운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나날에 세 딸도 나라의 무료교육제의 혜택으로 대학공부를 하고 조국보위초소에

도 섰으며 만딸 명숙이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연구사를, 둘째딸 남순이는 어느 한 기업소의 부원을 남편으로 맞았습니다. 그러자 동네사람들은 세번째사위는 저희들이 책임지겠다며 저마다 총각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인민군군관이 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에게는 제대군인이며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무슨 일에서나 막힘이 없는 막내딸 향숙이보다 더 훌륭한 처녀는 없다며 그 애와 결혼을 하겠다는데였습니다.

그러는 그가 너무도 마음에 들어 저와 남편은 두손을 들어 그를 막내사위로 맞았습니다.

온 집안에 행복만이 차넘치던 어느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뇌혈관질환으로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물론 딸과 사위를 비롯한 온 집안식구들이 정성을 다 기울이었으나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내 남편은 저의 두손을 꼭 잡고 《여보, 난 이제 다된것 같구려. 내가 없어도 당만 믿고 살면 되오. 일부 편협한 사람들이 우리 집안문제를 두고 이러구저러구 할 때에도 당에서는 우리 운명을 지켜주지 않았소. 그래서 당을 어머니라 ...》라며 말끝을 맺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나니 집에는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의당조직에서는 제가 주저앉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생활에서 애로가 있을세라 일일이 헤아

려주었으며 마을사람들도 제가 앓을세라 외로와할세라 온갖 마음을 다 써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진정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친정집 어머니그대로였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고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며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까지도 다 풀어주는 이런 어머니당의 사랑이 언제나 제곁에 있었고 우리 인민모두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서정시 《어머니》를, 그가운데서도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 당이여 조선로동당이여 ... 그대는 어머니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주며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자식들을 가리지 않고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바로 어머니-조선로동당의 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조선로동당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평양시 중구역 련화2동 박금영

당 창건 기념탑



뜻깊게 맞이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다함없을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는 조국인민의 환희이런가 마치와 낮과 붓, 당마크를 형상한 당창건기념탑에도 어머니당에 대한 한없는 흠모와 경모

의 정이 뜨겁게 굽이쳐 흐르고있다.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이름과도 같은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위대한당이 있기에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력사는 영원히 흐를것이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 이것이 인민의 운명을 간직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뜻이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린다는것은 훌륭히 일떠선 문화정서생활거점과 현대과학기술보급기지들에서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최고의 높이에서 누린다는것을 말한다.

둘이켜보면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 조국인민은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아래 사회주의문명을 금지높이 누려왔다.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

장, 류경원,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등 이르는 곳마다에 훌륭히 일떠선 문화정서생활거점과 현대과학기술보급기지들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에서는 환희에 넘친 인민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뿐만아니라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부문에서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고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사회주의도덕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다.

더우기 온 나라에 차넘치는 과학열풍은 조국인민이 누리는 문명의 높이를 잘 알게 해준다.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21세기 주체적 건축예술의 상징으로, 주체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과학기술전당이야말로 조선로동당이 과학의 힘으로 인민의 지상락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어



떻게 건설해나가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준다.

사실 나라에 로력이 남아돌아가고 자재가 많아 그렇듯 희한한 국보적인 건축물들을 일떠세운것은 결코 아니다. 과학과 교육을 강성

국가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사중의 중대사로 내세웠기에 것처럼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세인을 놀래우는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우는 대용단을





내릴수 있는것이였다.

얼마전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인 과학기술전당의 어린이꿈관에서였다. 5살난 딸애와 함께 휴식일마다 어린이꿈관을 찾아오곤 한다는 만경대구역의 한 녀성은 아동열람실에서 열심히 책을 읽고있는 딸애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저렇듯 행복한 아이들이 또 어데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갈마들어 눈물을 금할수가 없다. 어린이꿈관이야말로 어머니들이 그려보던 우리 아이들의 궁전, 우리 나라에만 있을수 있

는 사랑의 세계이다.》

후대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창조물들을 더듬어볼수록 창창한 미래가 밝아오는 조국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고 이 땅에서는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는 확신과 신심이 가슴을 후덥게 해준다.

그래서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불멸의 헌신과 로고의 자욱을 새기시며 전민학습의 대전

당을 세계적인 건축물로 희한하게 일떠세워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는것이다. 그리고 원수님의 령도밑에 더욱 문명하고 번영할 사회주의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주체적건축예술의 표본, 국보적인 건축물은 이뿐이 아니다. 과학자, 교원들을 위한 웅근 하나의 거리가 대동강기슭에 일떠섰는가 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이라는 뜻깊

은 부름과 더불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훌륭히 개건되었으며 장천땅에는 도시사람들도 부러워할 희한한 농촌도시가 일떠섰다.

오늘 하루가 다르게 조국땅에 펼쳐지는 새로운 현실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조선중앙통신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해간다

세멘트생산기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새 기적창조의 열풍이 세 차게 몰아치고있다.

지난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 필요한 세멘트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는 과정에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올해 1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축하전문을 받아안은 남다른 자량을 안고있는 이곳 세멘트생산자들이 혁신의 날과 날을 끊임없이 이어가고있다. 지배인 윤재혁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상원의 로동계급은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생산적양양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70일 전투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올해에도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해나갈것이다.》

혁신의 앞장에는 언제나 일군들이 서있다. 기업소일군들은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경제조직과 생산지휘를 짜고 들어나가고있다.



모든 생산공정들을 감시하면서 생산을 지휘하는 종합조종실을 비롯하여 공무직장과 광산, 탄광 등 들끓는 현장들에서 일군들의 소참모회의가 수시로 열리고있다.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에 풀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일군들의 일본새는 그대로 증산의 거센 밀물이 되고있다.

종합조종실의 운전공들은 기업소안의 모든 설비들을 정상가동시키는것이 올해에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지난해 현대화된 설비들의 정상운영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면서 변화되는 공정들의 상태에 따르는 조작방법을 더욱 개선해나가고있다.

원료직장에서는 대형분쇄기가 만가동을 걸고 소성로에서는 생산량이 부쩍 늘어나고있다.

세멘트직장에서는 부가물을 대대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분쇄기의 설비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짜고들어 능력을 제고하여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량의 세멘트를 생산해내고있다.

세멘트생산의 기본원료보장단위인 상원석회석광산과 화천탄광, 삼천광산을 비롯한 련합기업소 아래 모든 단위들에서도 조업후 보기도문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상원석회석광산에서는 굴착기와 룰전기재들의 가동률을 원만히 보장하는 한편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현대적인 4지구종합파쇄장건설도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

상원석회석광산 지배인 한영진은 《세멘트생산의 선행공정을 맡고있는 광산에서 발파소리가 더 높이 울려야 세멘트생산량이 높아지게 된다.

당 제7차대회에 드릴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하는 오늘의 총진군의 선두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을 받아안은 우리 상원의 로동계급이 서있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삼천광산 채광소대원들속에서도 종전과 대비도 안되는 굴진속도, 출광속도가 창조되고있으며 파쇄기운전공들과 하차공들의 일손에서도 불이 일어나고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일생산량에서 광산이 생긴 이래 보기도문 기록이 계속 창조되고있다.

불꽃튀는 생산장성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뜻깊은 올해에도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해나갈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

자력자강이 안아온 결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 조선 가방용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면서 키고있다.



증산의 동음은 가방용천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3직포직장에서 높이 울리고있다. 직포공들은 질 좋은 천을 한m라도 더 짜기 위해 직기들마다에 자기들의 성실한 땀을 바쳐가고있다. 감기는 천들을 주의깊게 살피며 날랜 동작으로 직기들사이를 오가는 직포공들의 얼굴들마다에는 천생산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다.

가방용천의 염색을 맡은 염색가공직장 가방천작업반 생산자들도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제품의 합

정을 돌아보시면서 완전히 국산화된 생산공정, 우리 식 생산공정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공장에서는 가방용천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국산화하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 누구도 가방용천을 생산해본 경험도 없고 직기도 보지 못했지만 공장종업원들은 평양방직기계공장과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교

원, 연구사, 기술자들과 지혜와 힘을 합치였다. 그들은 수압식직기가 아니고서는 가방용천을 짤수 없다던 종전의 개념에서 벗어나 유연창대직기의 씨실가위와 감축기를 새롭게 개조하여 한울을 짜던 직기에서 두울을 짤수 있게 하였다.

3직포직장 공정기사 리로남은 해보니 별게 아니다, 앞으

로는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만든 유연창대직기로 두울뿐 아니라 세울, 네울도 짤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공장에서는 우리 식의 고온고압로라염색기를 새롭게 창안하여 가방용천을 염색하고있다. 이 염색기로는 다른 나라의것보다 염색공정에 드는 시간을 3시간이나 줄이면서도 공해가 없고 천의 모든 면에 다 골고루 염색할수 있다.

직포공 백정향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고있는 데트론인 견실을 가지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유연창대직기와 고온고압로라염색기 등을 가지고 가방용천을 생산하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높이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가방용천생산에서 보다 더 큰 혁신을 일으켜나갈것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격비중을 높여나가고있다.

학생소년들에게 질 좋은 멜가방이 하루빨리 가닿게 하려는 그들의 열의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가방용천생산실적은 눈에 띄게 높아가고있다.

성과의 비결에 대해 공장일군인 민일홍은 이렇게 말하였다.

《국산화가 안아온 자량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년전 12월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현대적인 가방용천생산공정을 새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지난 1월 또 다시 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우리가 건설한 가방용천생산공

공장에서 생산된 천으로 만든 학생용멜가방들의 일부





어장은 풍치수려한 대동강의 옥류교와 룡라도사이에 있다. 양어장은 주위환경과 잘 어울려 이채로운 풍경을 펼쳐 보이고있다.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은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기를수 있는 그물우리들과 종합조종실, 사료창고, 휴게실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물온도, 폐하, 산소량을 실시간 측정하고 그물우리별 먹이공급량과 공급회수, 공급시간은 물론 나비등, 불장식등을 자동조종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구축되어있다.

이곳 작업반장 김철남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전국도처에 건설한 양어장들이 은을 내게 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들은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며 잡도리를 든든히 하고 달라붙어 경험을 축적하고 많은 물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인민들이 실지로 그 덕을 보게 하겠다.》

글 본사기자 유선화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

특색있는 양어장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동강이 풀리자 겨울철에 강바닥에 가라앉혔던 대동강이동식그물우리양어

장이 다시 선을 보이였다.

그물우리양어는 물보장에 필요한 양수동력설비들이 전혀 필요없으며 많은 로력과 먹이를 절약하면서도 물고기생산량을 늘일수 있어 경제적효과성이 대단히 크다.

대동강에서의 그물우리양어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물우리에서는 수심에 따라 서식장소가

서로 다른 기념어, 룡정어, 잉어, 조개 등이 층층이 배치되어 자라고있다.

거기에서 먹이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수질오염을 방지할수 있는 사료공급체계가 마련되어있어 실리를 보장하고 그 효과성도 높이고있다.

지금은 강웃넉으로 올라온 기념어의 알낱이준비로 양어공들도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

면적이 1 600여㎡인 대동강이동식그물우리양



그물
작업

수질
검사



준엄한 봄

(전호에서 계속)

그때까지만 해도 철주는 새 고장에 별로 정을 붙이지 못하고있었다. 중강, 림강, 팔도구, 무송과 같이 큰 강을 낀 시가지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별방과 철도에서 멀리 떨어진 안도는 너무나도 한적한 시골이었고 새롭게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는 또 하나의 서름서름한 고장이었다.

《형님, 감옥에서 나온 다음 무송에는 들러보았나요?》

그때 철주는 나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였다.

《들리고싶었지만 들리지 못했다. 집에도 가보지 못하고 돈화로 끈추 온 내가 무송에 어떻게 간단 말이나.》

《무송사람들이 형님을 몹시 보고싶어했어요. 울화형은 형님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하루에 한번씩 우리 집에 오곤 했어요. 무송사람들이 참 좋았지요?》

동생의 목소리는 무송시절에 대한 그리움에 푹 젖어있었다.

《그럼, 종구말구.》

《무송에 두고온 동무들이 자꾸 생각나군 해요. 형님이 그쪽으로 가실 기회가 생기면 우리 동무들을 꼭 만나보라요.》

《그렇게 하자꾸나. 그래 안도에 와서도 새 동무들을 많이 사귀었니?》

《아직 많이 사귀지 못했어요. 안도에는 내 나이포래의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나는 철주가 새 고장에 와서도 무송시절을 계속 그리워하고있으며 그 그리움때문에 안도생활에 길숙이 발을 잡그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낸다는것을 감촉하였다. 애수에 잠긴듯 한 동생의 눈과 쓸쓸한 얼굴표정이 그것을 다 말해주고있었다. 그 나이의 망향소년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반

감의 표시라고나 할가. 동생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는 어쩐지 내 마음까지도 어수선하게 하였다.

《철주야, 부지런한 농사군에게 좋은 땅, 나쁜 땅이 따로 없듯이 훌륭한 혁명가에게는 좋은 고장, 나쁜 고장이 따로 없단다. 안도라고 왜 좋은 동무들이 없겠느냐. 동무란 건 찾아낼타이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지 않더냐. 동무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보석을 캐내듯이 찾아내야 한다구. 좋은 동무들을 많이 찾아내서 한번 안도를 멋있게 개척해보아라. 너두 인젠 공청생활을 해야 할 나이가 아니냐.》

나는 공청에 가맹할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동생에게 거듭 강조하였다.

《알겠어요. 형한테 걱정을 끼쳐 미안해요.》

동생은 표정을 가다듬고 엄숙한 기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후 철주는 인차 공청에 가맹하였다.

나는 사도황구에 머무르는 기간 고재봉, 고재룡동무들을 도와 소년탐험대와 농민동맹, 반일부녀회를 무어주는 한편 동남만각지에 널려있는 혁명조직성원들과의 련계를 짓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재봉을 통해 룡정, 화룡, 길림의 련락소에 보낸 나의 편지를 받고 김혁, 차광수, 계영춘, 김준, 채수항, 김중권 등 10여명의 동무들이 사도황구로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의 지휘성원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동만을 뒤흔들고있는 폭동이 예상했던것보다 더 격렬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이 폭동의 주력을 담당한것이 바로 만주지방에 거주하고있던 조선사람들이었고 그들을 폭

동으로 선동하고 인도한것이 한빈, 박윤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중국당에 전당하려면 실천투쟁에서 공로를 세워 그 당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폭동에 결기하라고 호소하였다.

당시로 말하면 동북지방에 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국제당의 1국1당제원칙에 따라 당재건운동을 포기하고 중국당에 적을 옮기기 위한 공작을 맹렬하게 벌리고있을 때였다.

중국당에서도 실천투쟁을 통한 검열과 개별적인 심의를 거쳐 개인의 자격으로서만 당에 들어올수 있다는 원칙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하였다.

이런 때에 국제당에서 내려온 사람들까지 폭동을 선동하며 돌아다녔기때문에 중국당에 전당하려고 애쓰던 만주총국소속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야욕과 탐위적목적을 앞세우면서 인민들을 무모한 폭동으로 내몰았다.

그들은 청산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까지도 청산하였고 지어는 학교와 발전소에까지 불을 질렀다.

5. 30폭동은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중국의 반동군벌들로 하여금 만주지방에서 공산주의운동과 반일애국투쟁을 탄압할수 있는 좋은 구실을 주었다. 만주의 조선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은 가혹한 백색테로의 대상으로 되었다.

군중들은 막대한 희생을 내면서 농촌과 산간오지로 쫓겨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경신년의 대《토벌》을 방불케 하는 참사가 동만각지에서 벌어졌다. 류치장과 감옥들은 모두 폭동군중으로 차고넘치였다. 수많은 폭동관계자들이 조선으로 압송되었다. 그들은 서울에 끌려가서 모두 극형과 중형을 언도받았다.

봉천군벌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간계에 넘어가 폭동군중을 잔인하게 탄압하였다. 일제는 조중인민들사이의 리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선사람들이 동만에서 폭동을 일으킨것도 만주땅을 빼앗기 위한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군벌의 우두머리들은 그 선전을 그대로 곧이듣고 조선사람은 공산당이며 공산당은 일제놈의 앞잡이기때문에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폭동군중을 닥치는대로 살해하였다. 우둔한 군벌은 공산주의자와 일제의 앞잡이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있었다.

5. 30폭동기간에 체포되고 살해된 사람들은 실로 수천명에 달하였는데 그 대다수가 조선사람이었다. 피검자들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였다. 폭동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조직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폭동을 계기로 조선사람들과 중국사람들사이의 관계가 몹시 나빠졌다.

리립삼로선은 후날 중국당내에서 《망동주의로선》, 《소부르조아적광증》으로 평가되었다.

리립삼의 쏘베트홍군로선은 동북지방의 실정에 맞지 않는 모험주의적로선이였다.

그해 9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리립삼의 좌경모험주의로선을 심각히 비판하였다.

국제당에서도 《11월 16일부서한》을 통하여 리립삼의 좌경모험주의적오류를 비판하였다.

만주성당조직에서는 성위확대회의와 련석회의를 열고 리립삼의 오류를 비판하였다.

우리도 1931년 5월의 봄명월구회의에서 리립삼로선을 비판하고 좌경모험주의적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리립삼의 좌경모험주의의 여독은 그후에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여러해동안 동북일대의 혁명투쟁에 영향을 주었다.

사도황구에 모여온 청년들은 《조선민족의 피가 아깝다.》고 통탄하였고 《우리 혁명이 언제

까지나 이런 혼돈속을 헤매야 하겠는가.》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와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힘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폭동의 후파가 큰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후파가 크다고 한탄만 해서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탄은 그만하고 각지에 나가서 조직을 복구하며 뒤수습을 해야겠다. 중요한것은 종파분자들의 야욕을 발가내고 군중을 그들의 영향에서 떼내는것이다. 그러자면 그들에게 조선혁명의 진로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폭동은 비록 류혈로 끝났지만 군중은 그 과정을 통해 크게 단련되고 각성되었을것이다. 조선민족은 이번 폭동을 통해 전투력과 혁명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나는 우리민족의 그 위대하고 헌신적인 투쟁정신에서 크나큰 힘을 얻었다. 이런 인민에게 과학적인 투쟁방법과 전술을 가르쳐주고 민족이 나아갈 진로를 밝혀준다면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동무들은 이런 호소를 듣고도 별로 큰 자극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한별동무의 말이 옳다. 그런데 대중을 공감시키면 한 새 진로가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답답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런 로선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서 섬겨바치는것도 아니다. 우리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만들어야 한다. 내가 옥중에서 생각해둔것이 있는데 동무들의 의견을 듣고싶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어 차광수, 김혁, 박소심 등과 이미 토론한바 있는 조선혁명의 로선상문제를 내걸고 장시간에 걸치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도황구회의이다. 이 회의에서도 내가 제출한 안은 동무들의 지지를 받았다.

동만의 방방곡곡에서 벗어난 참혹한 류혈은 나를 다시한번 흥분시키고 각성시키였다. 나는 이

동만의 한복판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며 어떻게 하면 조선의 혁명군중을 피바다속에서 구원해낼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을 역경에서 건져내고 승승장구하는 혁명으로 인도할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줄곧 하였다.

혁명은 무장을 기다리고있었다. 잘 조직되고 훈련된 혁명군대와 인민을 기다리고있었으며 2천만을 승리의 길로 향도할수 있는 강령과 그 강령을 집행할수 있는 정치적참모부를 기다리고있었다.

내외의 정세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국과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성전에서 전환을 일으킬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전환이 없다면 우리 민족이 더 많은 류혈과 참화를 당할수 있었다.

나는 우리가 이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며 1930년 여름에 바로 이런 전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심을 가지고 머리속에 떠오르는 사색의 알맹이들을 목책에 쉬임없이 정리해두었다.

우리는 사도황구를 떠나는 조직성원들과 공작원들에게 맡은 임무를 시급히 끝낸 후 6월 하순에 카룬에서 다시 만날것을 굳게 약속하였다.

그후 돈화에서 길동지구당회의가 열리였다.

회의에서는 폭동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파쟁분자들은 5. 30폭동과 같은 폭동을 또 일으키려고 계획하였다.

나는 5. 30폭동은 무모한 폭동이었다는것을 비판하고 그들의 계획을 반대하였다.

그해 봄 나는 옥중생활에 이어 5. 30폭동까지 겪으면서 많은것을 체험하였다.

참으로 나의 일생에서 1930년의 봄은 잊을수 없는 성장의 봄, 시련의 봄이었다. 이 봄에 우리 혁명은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였다.

(끝)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5월 5일은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가 창립된 때로부터 80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조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 항일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조국광복회가 창립되던 력사의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 우리 조국이 노예의 쇠사슬에 더욱 옥죄여들던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통일전선조직을 내오고 그 산하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에국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우는 것은 조선혁명발전의 견지에서 보나 내외정세의 요구로 보나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중대한 력사적과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남호두회의이후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를 내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시켜나가기였다.

주체25(1936)년 3월 조선인민혁명군의 우수한 지휘간부들과 명망이 높은 애국단체대표들로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오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호두로부터 동강에 이르는 기간 끊임없이 진행되는 전투와 행군의 짝시간을 리용하여 새로 내올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의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작성하시였다.

그에 기초하여 그이께서는 주체25(1936)년 5월 무송현 동강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과 국내 각지의 독립운동자대표들, 천도교대표, 농민, 교원, 노동자대표들이 참가한 력사적인 조국광복회창립대회(동강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양상으로 이끌어올리자》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국광복회창립선언》, 《조국광복회규약》을 발표하시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주권문제의 해결을 조선민족앞에 나선 일차적과제로 제시하고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해외교포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과업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정치적과제들을 내놓았다.

또한 혁명적인 군건설과업도 제기하였으며 경제관계분야에서 일제와 매국적친일지주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고 일본국가, 일본인소유의 모든 기업소, 철도, 은행, 선박, 농장, 수리기관과 매국적친일분자의 전체 재산을 몰수하며 빈곤한 인민을 구제하고 민족적공농상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경제적과업들도 명시하였다.

창립선언의 구절구절은 처음부터 참가자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특히 온 민족이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2천만민중이 한데 뭉쳐 행동으로 반일조국광복전선에 참가한다면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며 모두다 조국광복회에 망라되어 싸울것을 열렬히 호소한 부분은 회의참가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회의참가자들은 그이께서 발표하신 강령과 창립선언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고 조선혁명이 뚜렷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게 되는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으며 강령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기어이 실현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창립대회참가자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을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준엄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통일전선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심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고 해방후 것처럼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 건당, 건국위업도 수행할수 있었으며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이 땅우에 끝없이 룡성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다면 민족의 숙원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엄향심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오늘 조국의 로동계급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을 모신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불리우고있다.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이 이름에는 조국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일하며 그분들의 한생의 념원을 창조의 마치고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들이라는 최상의 믿음이 담겨져있다.

돌이켜보면 사회주의조국에서 로동계급의 투쟁력사는 이 이름에 다 담겨져있듯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실 조국이 해방되었을 당시만 하여도 조국땅에는 로동계급이 불과 몇 %밖에 안되였다. 그것도 일제의 철쇄에 묶이고 짓눌렸던 어린 생명체였다.

그러하던 로동계급을 품에 안아 조국의 번영을 떠받드는 핵심으로, 강철의 대오로 키워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이의 슬하에서 로동계급은 나라의 주인된 자각을 깨달았고 자력갱생하는 법도 배웠으며 정의와 애국의 마음도 배울수 있었다. 하기에 그들은 혁명의 년대와 년대들마다에 자기 정도자의 절대적인 지지자, 옹위자, 판철자가 되어 자랑스러운 승리의 력사를 수놓아올수 있었다.

전화의 나날에는 석수흐르는 강도속에서 끊임없는 시험사격으로 고막이 터졌어도 총성을 멈추지 않았고 자욱한 연기에 더는 목표판이 보이지 않자 불뭉치를 손에 들고 목표판을 밝히며 병기생산을 멈추지 않은 로동계급, 전후

에는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자체로 트랙트르와 자동차, 전기기관차 등을 생산하였으며 단 14년만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한 로동계급도 바로 조국의 로동계급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한평생 로동계급과 생사를 같이하시며 그들을 떠밀어주고 이끌어주시였다. 일찌기 대학시절에 26호선반을 돌리시며 로동계급과 인연을 맺으신 그이께서는 그 나날에 로동계급과 한대오에 서있겠다고 뜨거운 맹세를 남기시였다. 그리고 그 맹세를 언제나 가슴에 간직하시고 것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강계의 눈보라를 헤치며 이곳 로동계급을 찾으시였고 삼복철강행군길을 이어나가시며 조국의 방방곡곡 로동계급을 찾고찾으시며 조국의 운명을 건 절대적 믿음을 안겨주시고 자기 힘으로 세계를 딛고 나가는 발걸음새도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동계급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강성국가건설에서 로동계급을 나라의 기둥으로 굳게 믿으시고 언제나 그들속에 들어가시어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시고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땅에는 최강의 핵억제력이 탄생하였고 황금해의 파도, 국산화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 모든 공적을 다 로동계급에게 통채로 안겨주시며 그들을 시대가 아는 영웅들로 키워주교계신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받들고 옹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한다고 하시며 로동계급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계신다. 로동계급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희한한 노동자궁전도 일떠세워주시고 그 바쁘신 속에서도 로동계급의 부탁을 잊지 않으시고 공장현관에 새길 친필을 안고 일터에도 오시였으며 자강도 로동계급과 김정숙평양방직 공장 방직공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친아버이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신 그이이시다. 로동계급출신 대의원들에게 남먼저 찬성투표해주시며 더없는 행복감에 잠기기도 하시고 로동계급이 이룩한 창조물들을 보시고서는 더없이 만족해하시며 우리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만이 창조할수 있는 자랑찬 성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분도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하기에 조국의 로동계급은 수령님들과 꼭 같으신 원수님의 그 사랑과 정에 목매여 애오라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 굳은 결의안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려왔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더불어 빛나는 조국의 로동계급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최후승리의 려명은 밝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강경수

견결한 자강력체현자들로 키워주시는 손길

참가자

윤재혁: 상원세멘트연합

기업소 지배인

신순태: 김중태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직장장

차성철: 평양어린이식료품

공장 기사장

연 옥: 본사기자

기자: 안녕하세요.

지금 온 나라에는 국산화바람이 세차게 불고있습니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와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불고있는 국산화열풍은 사회주의강성국가에로 나아가는 조국의 굳센 의지와 무한대한 국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윤재혁: 다 아시다싶이 자강력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으로써 그 힘은 모든 승리와 성과의 원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사람이 자강력을 잃으면 식물 인간이 되고 로동계급이 자강력을 놓치면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고수할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 상원의 세멘트생산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드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신순태: 오늘 평양의 지하철도를 누비며 살같이 달리는 지하전동차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에 젖어드는 하나의 생각이 있

습니다.

지난해 11월 새로 개발한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훌륭히 개발할수 있는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현대화이자 국산화이라는 관점밑에 투쟁한



윤재혁

결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하전동차의 성과적인 시운전을 통하여 수입병이라는 말자체를 없애야 한다는것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확증해주었다고,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제일 큰 힘을 안겨주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느라니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제작하던 날이 되새겨졌습니다.

지하전동차제작은 공정상 140일이상 걸려야 하는 방대한 과제였지만 당이 정해준 시

간까지는 80여일밖에 없었습니다. 140일 대 80일, 이것은 시간과의 투쟁, 불가능과 가능과의 대결이기 전에 정신력의 결사전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붉은기정신을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고귀한 재부로 심장에 쏘아박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연합기업소로동계급은 5 200여종에 8만개이상에 달하는 부속품가공과 730여종에 4 100여개의 부분품조립 등 방대한 과제를 불이 번쩍나게 해제끼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식으로 새로운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내고야말았습니다.

기자: 오늘 우리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자기 힘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 원료, 우리 자재, 우리 기술에 의거하여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자랑스런 성과들을 하나하나 이룩해 나가고있습니다.

차성철: 그렇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경영활동개선과 생산정상화, 과학연구사업 등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한시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두해전 12월, 우리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현대화방향과 방도 등을 명백히 밝혀주시였고 지난해 11월 또다시 공장에 찾아오시여 우리 식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전변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현대

화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것은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첨단설비들을 그쁘히 갖추어놓은것이라고, 당의 현대화방침에서 중책을 이루는것이 바로 국산화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발효탱크, 콩우유제품이적로보트, 마대포장기 등 200여대의 설비들을 국산화하여 자동화, 무인



신순태

화,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함으로써 적은 로력으로도 생산능력을 종전보다 거의 두배로 높이고있습니다.

윤재혁: 자강력의 원천은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일군들은 대중속에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힘, 우리 기술, 우리 제품에 대한 믿음과 애착,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언제나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기의 힘과 기술로 풀어나가게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보장하기 위한 방도를 공장의 현대화와 세멘트생산기술발전에서 찾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현존설비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공정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갔습니다. 그리고 100% 우리 힘과 기술, 우리 원료와 연료에 의거한 고질세멘트를 생산하여 나라의 세멘트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놓았습니다.

기자: 고질세멘트생산기술이 발명권을 받았고 그 기술을 개발한 연합기업소기술일군이 박사론문을 제출하였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신순태: 무슨 일이나 성과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심을 없애고 자기 힘으로 발전할수 있는 담보는 자강력에 있습니다. 자강력만 있으면 적들의 그 어떤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경제강국도, 사회주의문명국도 보란듯이 일떠세울수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새기면 모든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소와 련관부문에서는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세계적수준의 지하전동차를 계열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업을 받아안고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지하전동차를 계열생산할수 있는 준비를 끝내는것과 함께 자력자강의 힘으로 전기기관차와 객차수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습니다.

차성철: 우리 공장에서도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70일전

투기간에 국산화된 설비들을 만가동시키는 문제와 그에 따르는 부속품들을 확보하는 문제, 제품의 맛을 최상의 수준으로 개선하는 문제, 새 제품개발문제 등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자강력제일주의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심과 수입병이라는 악성종양을 완전히 도려내고 제힘으로 발전하면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려는 인민의 의지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



차성철

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주고있습니다.

기자: 옳은 말입니다. 자강력은 키워야 빛이 납니다. 키우면 키울수록 강해지고 위력을 발휘하는것이 자강력입니다.

우리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견결한 자강력의 체현자들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이 땅우에는 자주로 존엄높고 부강하는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강성국가가 반드시 일떠서게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



총서홀에는 청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청년운동사적관

평양의 광복거리에 청년운동사적관이 위치하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주체35(1946)년 1월 17일]



70돛에 즈음하여 건설된 사적관에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청년사업을 중시하고 청년들과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과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문헌들과 사적자료들이 매년대기별로 전시되어있다.

사적관은 총서홀과 10여개의 전시실로 되어있다.

총서홀에는 청소년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이 색조각상으로 모셔져있다.

여러 전시실에는 일찌기 청



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신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 사진들 등이 전시되어있다.

전시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들과 사적자료들은 항일혁명투쟁속에서 조선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나고 그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새 민주조선건설과 전후복구건설시기를 비롯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고있다.

전시실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의 뜻과 호소를 높이 받들고 수많은 청년들이 탄광과 광산, 철길과 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달려나가 기적과 위훈을 창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과 전시물들이 있다.

또한 전시실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해불봉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게 하여주시였으며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영상사진문헌들과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전시물들은 청년영웅도로와 북부철길건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어렵고 힘든 과업들을 청년들을 믿고 그들

에게 통채로 맡겨주시였으며 조국땅위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에 청년이라는 이름이 더욱 빛나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사상을 보여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전시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리어 강성국가건설장들마다에서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운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전시실들에는 청년강국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청년돌격대원들이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도록 이끌어주신 내용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진문헌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사상이 집대성된 청년운동사적관으로는 수많은 청소년학생들이 찾아오고있다.

글 본사기자 진룡진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여 세워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에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책을 펼치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어제와 그리하였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인민대중제일주의가 활짝 꽃피나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다는것은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살아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자면 정치에서부터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정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은 일찌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고 우리 인민이 자기 의사에 맞게 정권을 세우도록 이끌어왔다. 하여 우리 인민은 자기 손으로 자기 의사에 맞게 인민이 주인이 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인민을 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웠기에 공화국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모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여나가고있다.

인민대중이 참다운 정치의 주인이 되자면 국가정권의 주인이 될뿐아니라 정당, 단체의 정치생활에도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정연한 정치조직생활체계가 세워져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정치조직생활을 자

각적으로 해나가면서 자기의 값높은 삶을 누리고 있다. 정치조직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주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참다운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자기의 삶도 미래도 다 맡기고있다.

인민대중은 경제생활에서도 주인이 되여야 한다. 경제생활에서 주인이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경제제도 특히 소유제도에 의해 규정된다.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려는 인민대중의 념원이 실현된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은 경제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있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룡성변영을 위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근본인 인민들의 사상문화생활조건도 책임지고 보살펴준다. 온 사회에 정연한 학습체계가 세워지고 학습조건이 마련되여 모든 사람들이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으며 누구나 창조적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힘있는 존재로 자라나고있다. 선군시대의 문화가 꽃피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고상하고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이것은 오직 진정한 인민의 나라인 우리 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자랑찬 현실이다.

공화국에서는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고있다. 국가와 사회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높이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의 높이를 결정한다고 말할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로선과 정책을 세우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하고있다. 하기에 오늘 나라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그 어느 하나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떠난것이란 없으며 그것을 철저히 실현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 인민들에게 평등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인민적시책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오늘도 변함없이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가장 으뜸가는 사회적혜택을 안겨주고있는 공화국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의 마음은 끝이 없다.

하루일이 끝난 후

평양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해가는 평양기초식품공장에 들어서면 마음마저 흥그러워진다. 한것은 멋들어지면서도 현대적인 생산건물도 좋지만 다양한 체육시설과 문화후생시설들, 과학기술보급실이 잘 갖추어져 노동자들이 노동이후의 다양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모습을 볼수 있기때문이다.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에는 마침 노동시간이 끝난 때였다. 배구장에서는 벌써부터 운동복을 입은 남녀선수들이 준비운동을 하고있었으며 북이며 팽파리

를 든 응원자들이 법석대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안겨왔다.

이어 경기가 시작되였다. 된장직장 대 기름직장이 진행되는 배구경기였다. 1회전에서는 기름직장이 이겼는가 하면 2회전에서는 경기가 역전되여 된장직장이 이긴것으로 하여 3회전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다. 응원열풍 또한 고조를 이루었다.

그런 모습은 룡구경기장과 탁구경기장에서도, 《장훈이야, 명훈이야》

과학기술을 습득해간다.



오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은 자기의 행복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박사 부교수 림철



민속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다.

고 노래와 춤 연습에 여념이 없어하는 노동자들로 흥성이었다.

부흥원에서의 생활은 더욱더 량만적이었다. 노동과 그이후의 체육과 음악활동 등을 벌린 노동자들은 이곳에 손색없이 꾸려져 있는 수영장과 한증탕 등에서 피

로를 풀고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음악감상실과 도서실도 훌륭히 꾸려져있어 노동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관리원 김애란은 부흥원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

공장에 꾸려진 부흥원에서



실참에 진행되는 직장별 농구경기

로 운영한 결과 종업원들의 육체적준비와 함께 문화적수준이 날로 높아 가는것을 느낄 수 있다고, 높

아가는 그들의 수요일에 맞게 부흥원의 운영을 보다 개선해나가 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그와 이야기를 나눈 후 과학기술보급실로 향하였다. 이곳에 있는 원격강의실에서는 공장노동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

음악감상실에서



학 과정안을 수료하고있었다.

대학에 입학하여 조종공학과 3학년과정안을 배우고있다는 된장직장 노동자 김광명은 노동도 그렇지만 그이후의 다양한 생활이 꽃피어나는 공장이 참으로 마음에 들고 애착이 커간다고,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공장을 빛내여갈 결심이라고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기름직장 리완근 역시 다양한 생활이 꽃피어나니 그것은 그대로 생산장성, 기술혁신으로 이어진다고, 현재 직장에서는 월계획을 넘쳐수행하였을뿐아니라 기술혁신도 많이 하였다고, 앞으로도 그런 성과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날이 문명해질 노동자들의 생활을 다시금 그려보게 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천망이 좋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개발추진위원회 양기성과 기자의 문답 -

기자 : 현대문명으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있는 오늘날 인간은 생태환경이 보존된 아름다운 대자연의 경치속에서 즐거움을 다채롭게 느끼며 살기를 원하고있다. 그러한 사람들의 념원은 바로 관광에서 실현될수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양기성 : 그렇다. 그 념원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원산지구를 비롯한 강원도안의 명승지들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꾸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 사업에 다른 나라 투자가들도 광범히 참가하여 투자와 기업활동, 관광을 할수 있게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창설하였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지난해에만도 적지 않은 관광사업이 이루어졌다.

양기성 : 천연산악과 평야, 바다와 호수가 조화롭게 어울려있는 이 지대에는 오래전부터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거나 개발을 필요로 하는 풍부한 관광자원들이 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원산육아원, 애육원, 금강산과 마식령스키장 등 원산과 금강산지구에서 많은 조국인민들과 외국인들, 해외동포들이 기쁨과 랑만에 넘친 관광의 나날을 보내었다.

기자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건설은 몇단계로 진행되는가.

양기성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건설은 크게 두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번째 단계는 주체106(2017)년까지, 두번째 단계는 주체111(2022)년까지이다.

기자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 어떤 대상들이 속하는가.

양기성 : 원산시에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송도원해수욕장,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비롯한 관광대상들이 있다. 원산시와 함께 울림폭포(원산에서 68km), 마식령스키장(원산에서 25km), 석왕사(원

산에서 47km) 등 관광지들도 있다. 원산에서 105km 떨어진 곳에는 조선의 명산 금강산이 있다.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지역으로 이루어져있는 금강산은 산악미, 계곡미, 고원경치, 전망경치, 호수경치, 바다와 해안경치 등을 다같이 갖추고있어 단순한 하나의 명승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명승을 한곳에 모아놓

은 명승지의 집합체를 이루고 있다.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들



은 명승지의 집합체를 이루고 있다.

기자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개발계획에 대하여 말해줄수 있는가.

양기성 : 원산시, 법동군, 안변군, 통천군, 고성군, 금강군의 일부 지역들을 포함하여 4만 3 600ha에 달하는 구역을 개발하게 된다.

원산시에는 도시중심축으로 상업봉사구역과 과학기술교류구역, 문화휴식구역이 꾸러지게 되며 산기슭에는 묶음식, 탐식살림집들이 새로 전개되고 갈마거리에는 3 000여세대

의 주택이 일떠서게 된다. 또한 수산물가공과 식료품생산 등 관광운영에 필요한 산업이 지대적특성에 맞게 창설되게 된다.

관광봉사계획에 따라 실내수영관, 수족관, 곱등어교예장 등 문화오락휴식장들이 들어서게 되며 송도원해수욕장의 수용능력도 확장되게 된다.

그리고 상업봉사구역과 민족문화전지구, 승마장, 골프장, 나라별상업거리가 일

떠서게 된다. 석왕사지구에는 등산도로가 새로 꾸러지게 되고 바다경치와 호수경치를 한눈에 볼수 있는 통천지구에도 관광시설들이 일떠선다.

더우기 금강산에는 등산과 휴식, 치료, 오락을 위한 관광봉사시설들이 새로 일떠서고 숙박능력이 확장되게 되며 명소의 곳곳마다에는 호텔과 민속거리, 민족무도장 등 각종 문화시설 및 오락시설들이 꾸러지게 된다.

원산-금강산지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꾸리기 위한 하부구조건설을 비롯한 조건보장사업도 힘있게 진행되고 있다.

세상사람들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신비로운 자연풍경으로 이름난 나라 조선의 관광을 통하여 백 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의 참뜻을 깊이 새기게 될것이다.

* * *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마식령스키장을 찾는 관광객들



온갖 새들이 날아든다

얼마전 강원도 안변군을 지나던 우리는 촬영기를 들고 새들을 사진찍고 록화촬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취재길에서 우리는 동업자를 만났구나 하는 반가운 생각에 선뜻 그들에게 말을 건네여보니 그들은 촬영기자가 아니라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의 연구사들이었다.

쌍안경, 측정기, 장구류들을 착용한 그들의 행색은 요란하였다. 그들은 철새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조국땅 그 어디나 다 다닌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실장 김성호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와 식량, 자원, 환경, 에너지 5대 위기의 모든 문제들은 다 생물다양성과 밀접히 연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말하였다.

우리는 조국땅 곳곳에 남모르는 땀방울을 바쳐가는 이들의 모습을 지면에 남기고 싶어 평양에 있는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를 찾았다.

우리와 만난 부원 김순화는 《연구사들이 다 조사사업을 나가다니니 지금 연구소의 매방들은 거의나 비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사들이 이룩한 성과는 자못 큼니다.》라고 말하였다.



자연보호구역연구실, 회복생태연구실, 지리정보연구실 등으로 이루어진 연구소에서는 생태계의 구성부분인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었다. 조국의 위기종 동식물들과 주요철새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서식지보호, 복원...

그 나날 리충성, 진명일, 류금혁연구사들은 강원도 안변벌에 회귀한 새인 흰두루미들이 날아에게 하였다는것이였다.

원래 강원도 안변군일대에서는 지난 시기 200여마리의 흰두루미들이 겨울을 났으나 최근년간에는 전혀 보지 못하고있었다. 연구사들이 조사연구한테 의하면 이곳에서 흰두루미가 겨울을 나지 않게 된 기본원인은 먹이원천이 부족하고 충분한 겨울나이조건이 보장되지 못한것 등이였다.

연구소연구사들은 먹이조건, 물조건을 비롯하여 흰두루미가 겨울을 날수 있게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주는것과 함께 여러차례의 유인실험을 거쳐 흰두루미가 날아오도록 하였다. 하여 수많은 흰두루미들이 이곳에 날아와 겨울을 나고 봄에 번식지로 날아갔으며 일부 갯두루



하였다.

이외에도 조국의 명산들에 대한 수년간의 현지답사와 전면적인 생태조사를 진행하여 그 일대의 독특하고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이미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지구가 국제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되는데 이어 주체103(2014)년에는 칠보산지구도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되였다.

지금 연구소에서는 조국의 습지대들에 대한 생물다양성평가를 진행하여 지속적인 리용과 보호대책을 세우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있다. 그리하여 조국에는 저어새, 도요새, 남방기원계통의 조류들과 표식가락지새들을 비롯한 여러종의 새들도 날아오고 있다.

정말 큰 일을 하였다는 우리의 말에 연구소소장 윤철남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국에 온갖 새가 날아들수록 보람이 더 커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더욱 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입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미들에게 있어서는 도중머무름장소이기도 하였다. 흰두루미가 날아오니 안변군 비산리 농장원들은 옛모습을 다시 찾았다고 무척 좋아하였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였다. 연구사, 과학자들은 현지조사기간에 얻어진 자료와 사진 및 록화자료들로 많은 참고도서와 록화물들을 집필 및 제작



함께 걷는 길



김진명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가정들이 수없이 많다. 그 가정들중에는 보기 드문 수학자가정인 김진명의 가정도 있다.

이때껏 우리의 지면에 예술인가정, 음악가 가정, 체육인가정 등 많은 가정들을 소개하였지만 수학자가정을 소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취재길에 오른 우리의 발걸음은 날개라도 돋친듯 가벼웠다.

하지만 우리와 만난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강좌장 박사 부교수 김진명(49살)은 《아직 우리 가정은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라고 말하며 처녀처럼 수집음을 띠었다.

우리는 그의 마음이 십분 이해되었다. 지난해 2. 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을 때에도 기자들의 초점을 피해 수학의 세계에 파묻혀있은 그였다.

세계수학계가 해명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나가는데서 그는 남다른 기쁨을 찾고있다.

그가 수학에 취미를 가지게 된것은 중학시절에 진행된 전국적인 수학학과경연에서 2등을 한 때부터였다. 웬일인지 그때부터 그는 동무들이 힘들어하는 수학이라는 학문이 아주 재미있게 대하여졌다. 중학교교원들은 그의 지능을 적극 계발시켜주었다.

그리하여 진명은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에 입학하여 탐구의 낮과 밤을 보냈으며 대학시절에 도이쉴란드의 쉴러종합대학에서 공부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그가 세계적범위에서 학문을

을 쌓고 견문을 넓혀나가는 과정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쉴러종합대학을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중국의 청화대학, 무한에 있는 화중과학기술대학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여러 교육기관에서 지식을 다져나갔다.

《수학이라는 학문에 점점 들어갈수록 세계적으로 해명하지 못한 미지의 문제들을 내가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수학의 주류인 조화해석의 미해명문제들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라고 강좌장은 이야기하였다.

그는 주체94(2005)년에 SCI급잡지의 하나인 《도이쉴란드 수학통보》에 《베조브공간에서 연산자값푸리에인자정리에 대한 해석》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논문은 발표되자마자 수학계의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론문을 본 심사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은 최신연구분야이다, 이 논문은 대단히 훌륭하고 기묘한 해석을 하였으며 조화해석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련이어 실리는 그의 논문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발전하는 조국의 현실은 그가 보다 새로운 목표를 내세울것을 요구하였다. 그후 그는 함수공간구조와 조화해석에 대한 연구과제를 맡아 수행하는데서 큰 역할을 한것으로 하여 조국의 최고과학기술상인 2. 16과

리영옥



아들 김현진 (가운데)

학기술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뒤에는 저와 함께 미지의 길을 함께 걸어준 우리 집사람의 노력도 있습니다. 지금 중구역 창광고급중학교 수학교원을 하고있는 우리 집사람은 늘 저와 함께 수학교문을 푼답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손전화기에서 10월8일모범교수자로 되어 찍은 안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오똑한 코에 생기도는 눈동자는 수학교원이 라기보다 배우를 련상시켰다. 안해 리영옥(45살)은 알고보니 혁명가극 《청춘과원》의 주인공 성녀역을 한 배우의 딸이었다. 음악을 좋아한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교문에도 음악을 들으며 풀었다고 한다. 그후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에서 공부하면서 교원인 진명의 강의도 들었는데 그때 그의 학구적인 모습에 반한것이 인연으로 되어 오늘에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수학교문처럼 함께 풀고 도우며 나가고있다.

그들의 아들인 김현진은 모란봉제1중학교를 거쳐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4학년에서 공부하고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운 아버지처럼 훌륭한 수학자가 되는것이 자기의 결심이라고 말하였다.

정말 뜻과 마음을 함께 하며 나가는 이런 가정이 있어 조국은 나날이 부강해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조선속담 (걱정)

-밥은 굵어도 속이 편해야 산다
비록 밥을 굵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고생하는 걱정이 없어야 함을 비겨 이르는 말.

-병어리 뎡가슴 앓듯
병어리가 자기의 아픔이나 슬픔을 말로 표현할수 없는 데로부터 마음의 고통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앓을 태우며 걱정함을 이르는 말.

-손톱밑의 가시
늘 마음에 꺼림직하게 걸리는 일이 있음을 비겨 이르는 말.

-세살난 아이 물가에 놓은것 같다
위태로와서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경우에 비겨 이르는 말.

-허허 해도 빛이 열닷방이다
겉으로는 아무 걱정없이 좋은척하나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쌍가마속에도 설음이 있다
지난날에: 쌍가마를 타고 다니는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에게도 설음이 있다는 뜻으로 남보기에는 근심걱정이 없는듯 해도 알고보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두가지 설음이나 걱정이 다 있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얼은 족에 머리가 아프다
변변치 못한것이나마 남의것을 얻어가지게 되면 마음에 짐이 된다는 뜻으로 하는 말.

-우환이 도적
필요없는 근심걱정은 몸에 해롭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 *

유모아

덤배북청

한 녀자가 출장간 남편을 기다리며 혼자서 아이를 달래다가 잠들고말았다. 이때 갑자기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통신원이 편지 한통을 가져다 주었다. 본가집에서 온 편지인데 빨리 오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급해 어쩔줄 모르다가 아이를 안고 댕다 뛰었다. 달없는 어두운 밤이라 수박밭을 지나다 걸려 넘어졌다. 아이도 땅에 떨어졌다. 급한 나머지 서둘러 아이를 더듬어 찾아안고 계속 내뒀었다.

본가집에 도착하여 불빛아래에서 보니 품에 안은것은 아이가 아니라 수박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 초롱불을 밝혀 들고 수박밭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아이는 없고 배개 하나만 있었다.

그길로 다시 집에 돌아와보니 아이는 그대로 자리에서 달콤하게 자고있었다.

* * *

라선식뇌CT설비개발자들

지난해 10월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우리 식의 최첨단의료설비인 라선식뇌CT설비를 개발하였다.

이 설비는 지금까지 몇 개 나라에서만 독점하고있던 CT개발기술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해결하여 국산화한것이다.

라선식뇌CT설비개발사업은 6년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에 새로 조직된 생체전자공학연구실의 연구사들이 이 방대한 과제를 맡게 되었다.

실장 리무철을 비롯한 연구사들에게는 이와 관련한 과학기술적축적도 연구경험도 없었다. 말그대로 생눈길을 헤쳐나가야 하였다. 그들은 시제품개발기종으로 뇌CT설비를 선정하였다. 한것은 뇌출혈, 뇌혈전, 뇌경색환자들에 대한 CT촬영이 수많이 제기



되고있는 조건과 관련되어있었다. 하여 그들은 최첨단수준인 라선식뇌CT설비개발을 결심하고 세계적인 CT발전단계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것이 아니라 단번에 여러 단계를 도약한 첨단설비를 제작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웠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크지 않은 연구실에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연구가 벌어졌다. 그

들은 국산화된 최첨단의료설비를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기 위하여 체계설계부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해나갔다.

그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X선조종체계, 자료측정체계, 회전조종체계, 화상재구성체계 등을 설계하였으며 고전압발생기를 국산화할수 있는 기술적토대도 갖추어나가는 한

힘과 지혜를 모아



수많은 참고자료들을 탐독하며



편 우리 식의 조작체계에 의한 장치관리기술, 표준화상통신규약인 DICOM3. 0에 의한 자료기지도 구축하였다.

이러한 토대에 기초하여 여러 병원과의 긴밀한 협동밀에 림상실험을 여러차례 진행한 그들은 대비화상검토를 통해 여러가지 뇌수질병들을 진단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였다.

그들은 우리 식의 CT체계설계를 가지고 최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제작사업에 달라붙었다. 기대의 진동과 소음, 회전속도의 균일성을 보장하는것도 힘들었지만 보다 어려운것은 X선량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화상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몇달동안 X선피해를 받아야 하였다. 위험한 실험이었지만 누구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은 고전압발생기의 출력을 제고하고 X선관구선량안정화를 보장하였으며 그에 따르는 기계부분 개조 및 교정, 화상질제고, 장치의 안정성문제를 해결해나갔다.

그들이 개발한 우리 식의 라선식뇌CT설비의 동작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종합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첨단의료설비의 국산화를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은 하나의 혁명이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계열생산한 최첨단의료설비들이 병원마다 짝뿔덜일 그날이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왔다.》

글 본사기자 러 해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조국의 품에 안겨

생의 흔적을 남기다



김문희

와 형식, 작품 등에 대해 설명해주었는데 마치도 그가 전문설계가, 미술가인듯싶었다. 설계가다운 그의 식견은 실천활동속에서 터득한것이고 미술분야는 그가 천성적인 재능이 있어 벌써 8살때에 그린 그림이 세계아동미술전람회에 출품되었고 전국적인 아동미술전람회들에도 많은 작품들이 입선하였다는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제가 몹시 사랑하던 미술창작을 그만두고 미술전람사업을 하게 된데는...》라고 서두를 땀 김문희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7살에 조국의 품에 안긴 녀성이었다. 미술창작의 꿈은 그가 조국에서 한살두살 나이가 들수록 또 가정을 이루고 세 딸의 어머니가 되었어도 더욱 푸르러만 갔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미술전람회를 돌아보시며 이런 훌륭한 작품들을 지방인민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강원도를 비롯한 각 도에 전람관을 꾸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다.

(미술전람사업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 이런 공민적의무감을 안고 그는 미술전람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그가 시작한 첫 사업은 전람관청사건설이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관철하려는 의지를 안고 온갖 난관이 가로막아나설 때마다 맞받아 일

참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레외없이 흔적이 있고 제야의 종소리와도 같은 메아리가 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강원도미술전람관 부관장사업을 하고있는 김문희를 통해서도 알수 있었다. 우리가 그가 일하는 곳을 찾았을 때에는 밤이 깊었지만 그는 토론에 열중하고있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눈웃음을 곱게 보내는데 그것은 녀성다운 매력과 무던한 마음씨가 잘 조화된 웃음이었다. 한참만에야 일을 끝낸 그는 우리에게 함께 일하던 세명의 녀성들을 소개해주었는데 그들은 다 그의 딸들이었다.

《기자선생도 아시다싶이 지금 우리 원산시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꾸러지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게까지 전람관개건안을 토론하고있는데 여러가지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에게 이제 개건해야 할 전람관의 규모

어서군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대한 청천벽력파도 같은 비보에 접하게 될줄이야. 그때 그는 비통한 상실의 아픔속에서 자신이 사회와 집단을 위해 과연 무엇을 바쳐왔는가를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전람관을 기어이 일떠세우자. 모르면 배우면서 하자.

그는 이런 일념으로 건설학을 독파하는 한편 전람관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는 시기여서 부족한것이 많았지만 그는 그 모든것을 이겨내고 드디어 전람관건설을 끝내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인 광명성절을 계기로 미술전람회를 열자고보니 평양에서 미술작품들을 운반해오는 것이 문제였다. 그리자면 눈이 쌓인 험한 마식령을 넘어야 하였는데 그 령으로는 차들이 오를뎡을 못하고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단념하지 않았다. 그는 차가 굵이굵이 령길을 오르다가 미끄러지면 그대로 버팀목이 되기도 하였고 차를 밀며 령을 툭



도안의 미술창작가들과 함께

아오르기도 하였다.

이렇게 그는 도에서 처음으로 되는 광명성절경축 도미술전람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으며 그후에도 수많은 전시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뿐만아니라 전람관을 보다 잘 꾸리고 미술작품의 보존관리에서 전국적인 본보기를 창조하였으며 그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

게 되었다.

그렇게 흘러간 수십여년의 나날 어려워도 물러설줄 모르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견인발발의 의지로 일해나가는 그를 세대주와 딸들이 도와나섰으며 그 과정에 딸들이 어머니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일본에 있는 남편의 친구들인 최동명과 신길웅, 송영수, 정청미를 비롯한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나섰다고 한다.

나라에서는 그의 공로를 평가하여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대회에 불려주었으며 높은 급의 훈장도 수여해주었다.

우리와 헤어지며 김문희는 《사람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랑심껏, 재능껏 무엇인가 남겨야 하는데... 그런데 저는 남긴것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기뿐아니라 딸들도 더 일을 잘하여 꼭 생의 고귀한 흔적을 남길것이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가정에서 진행된 토론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김연주누님 앞

누님의 당부를 언제나 잊지 않으렵니다

보고싶은 누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애국사업에 헌신하고있을 누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매부와 은혜, 은성이도 다 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얼마전에 잡지 《금수강산》편집부 기자선생님들이 누님의 부탁대로 저의 집을 다녀갔습니다. 누님에게 이렇게 잡지를 통해 소식을 전하게 되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누님이 기자선생님들에게 저의 집자랑을 꽤나 하였더군요. 이제 정환이네 집에 가게 되면 집앞에서 출렁이는 푸른 바다를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해가 뜰 때 보면 참으로 멋있다고 그리고 집뜰에는 감나무가 많아 가을철에는 가지마다 주렁진 감알때문에 집이 보이지 않을것이라는 등 말입니다.

기자선생님들이 누님의 말대로 집앞에서 바다우에 떠오르는 해를 보았는데 모두 보면 볼수록 장관이라고 감탄하더군요. 그리고 가을철에 다시 와서 감알들에 묻힌 우리 집풍경을 꼭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님, 정말 그날은 누님이 저희 집에 온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온종일 말입니다. 그러느라니 자연 누님의 모습이 안겨오면서 만나면 늘 이처럼 아름다운 고장을 주인인 너희들이 계속 훌륭히 가꾸어나가야 한다고 하던 누님의 당부가 떠오르더군요.

누님, 저는 누님의 그 당부대로 지난해 나서 자란 고향을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모든 세대들에서 집안팎을 알뜰히 꾸리고 마을앞에 꽃밭이며 어린이들의 학습터와 놀이터를 새롭게 꾸리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송도원수산사업소도 지난 시기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때뻗이하였습니다. 사업소건물과 회관, 문화후생시설을 새롭게 꾸린것은 물론 물고기잡이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도 잘 갖추어놓았습니다. 지금 사업소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해갈 드높은 열의를 안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리고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고향을 사랑하고 사회와 집단을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일군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렵니다.

누님, 저의 집사람과 출가한 은련이 그리고 누님이 제일 고와하는 예성이도 몸건강히 잘 있습니다. 특히 예성이가 막히는데가 없이 일을 잘하여 그곳 일군들의 칭찬이 대단합니다. 얼마전에도 그 애 직장에서 사람들이 왔었는데 예성이가 회계수준이 높고 체육도 잘하는데다가 료리솜씨 또한 좋아 보배덩이로 사랑을 받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더군요.

딸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보니 자식들을 위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더 잘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조국에 올 때마다 조국을 받들어 일을 잘하자고 당부하던 누님의 말을 명심하고 앞



으로도 일을 잘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조국에서, 누님은 해외에서 나라의 룡성병역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애국의 마음을 합쳐갑시다.

누님과의 상봉을 기다리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강원도 문천시 고암동 28인민반
김정환동생 씀

러가 좋아 《명당》이런가

명당로동자구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종업원들이 살고있는 주택지구이다. 대도시의 한 구획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소도시라고 해야 할지 어떤 이 주택지구는 고층살림집들로 형성된 아담한 거리였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한 중년녀성에게 길을 묻게 되었다.

잡지 《금수강산》기자들이라는 우리의 소개에 그는 자기는 재미동포 문명자의 조카라고 말하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어느해인가 문명자동포가 자기의 집을 찾아 이곳에 왔을 때 인민의 복리증진을 제일로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인상에 더욱 깊이 머리를 숙이며 통일성업에 여생을 바치겠다고 말하였다는것이였다.

그는 새로 일떠선 과학자살림집 1층 1호가 자기의 집이니 취재가 끝나면 꼭 들리라고 하며 가던 길을 재촉하였다.

그와 헤어진 후 우리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종업원들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부터 찾았다. 기술부원장 리철국은 병원에서는 국가의 무

상치료제에 따라 기업소의 로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고있다고 하면서 지난 기간 산부인과, 외과들에서 구급환자들의 수술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내용과 약국약제사들이 자체로 마련한 고려약재들을 치료에 방사업에 리용하고있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병원의 여러 과들과 치료실, 입원실들을 돌아보았다. 그 과정에 이곳 의료일군들의 환자들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자기 일에 대한 책임성에 대하여 절감할수 있었다.

병원에 이어 우리는 학생들의 글소리 랑랑히 울려나오는 상원군 명당고급중학교도 찾았다. 올해에만도 이 학교에서는 수많은 졸업생들이 조국보위초소와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들로 달려나갔으며 수십명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였다고 한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선할데 대한 국가의 교육정책을 받들어 이곳 학교의 교육자들은 손색없이 꾸려진 다기능화된 교실들과 수영장, 체육관, 지리

종합상점에서



명당고급중학교에서



학습터, 계급교양홀, 교통안전교양홀 등에서 학생들을 훌륭히 키워가고있었다.

탁아소와 유치원, 종합상점과 고려약공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본 우리는 어둠이 깃들무렵 문명자동포의 조카 주현숙녀성과 한 약속을 지켜 그의 집을 찾았다. 알고보니 세대주 태일영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부기사가장이였고 만아들은 중앙조종실 운전공이였다.

내칸의 살림방과 부엌, 위생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다 갖추어진 집에서 우리의 눈길을 제일먼저 끈것은 지난 기간 태일영이 받은 과학기술성파도입증과 새기술도입증, 등록증들이였다.

만아들 태설남은 중앙조종실에서 세멘트생산을 조종하던 운전공이 옹근 옹근가고 의심할 정도로 피아노를 능란하게 연주하고있었다. 그는 공장에출신동활동에서도 핵심적역할을 하고있었다.

안주인인 주현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명당이라는 우리 고장의 지명을 입에 올릴 때마다 이름할수 없는 감격에 젖어들곤 합니다. 30여년전 이곳에는 산기슭을 따라 조용

히 흐르는 실개천과 크지 않은 밭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 실개천은 행복의 물결이 출렁이는 상원천으로 변모되였고 그것을 경계로 현대적인 세멘트생산기업소와 로동자구가 생겨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새로 건설할 때에는 꼭 로동자들의 살림집을 비롯한 생활조건부터 먼저 해결해주어야 그들이 안착되어 마음껏 일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터전과 함께 살림집건설부지까지 잡아주시여 상원의 로동계급은 공장조업 1년전에 벌써 궁궐같은 집을 받아안았다.

생각할수록 인민의 행복의 만년기들을 쌓아가는 거창한 건설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맡게 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명당자리에 들어있었다고 그토록 만족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그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어려왔다.

크지 않은 로동자주택지구가 명당이라는 이름과 나란히 불리우는 이런 현실이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세상인 우리 나라에서 꿈같이 펼쳐졌다.

하기에 그들은 자기 수령의 평도를 받들어 무에서 유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만리마의 속도로 비약하는 조국의 전진속도에 박차를 가해주는 생산성과를 이룩해나가는 길에서 명당이라는 그 이름을 빛내여갈것이다.

불빛밝은 거리에 나선 우리는 명당로동자구의 밤거리를 끝없이 걷고싶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명당로동자구에 꾸려진 온실에서



《백두산하늘아래 우리 삽니다》 (1)

평양에서 열리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는 재중동포예술인들이 축전공연 첫 서장에서 늘 먼저 부르는 노래가 있다.

장백의 산발을 넘어 압록강 물결을 넘고넘어
꿈에도 달려가는 사랑하는 나의 조국
아 태양민족 그 자랑 안고
백두산하늘아래 우리 삽니다
...

유순하면서도 정서가 흘러넘치는 이 노래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총련 합회일군들과 동포들이 집체적으로 작사, 작곡 한 노래이다. 노래의 가사와 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혁명적업과 그 사적이 깃들어있는 지경너머 백두 산하늘아래에서 사는 자기들의 긍지가 한껏 담겨져있다.

축전장에 올려가는 그들의 마음속 진정의 이 노래를 들을 때면 몸은 비록 이역땅에서 살지만 마음은 언제나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위인함모의 대화원을 펼쳐가는 동 포들의 모습이 안겨와 나는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한것은 내가 조국을 떠나 오랜 기간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직접 목격할수 있었고 또 뜨겁게 느꼈기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든 길림육문중학교를 찾아



중국에서 살고있는 동포대중 누구나가 마음 속에 간직하고있는 꽃은 진달래이다.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진달래꽃이 동포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되게 된데는 그 꽃이 위대한 수령님과 녀사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을 그리며 제일 사랑하신 꽃이었기때문이다. 하기에 동포들 누구나 다 진달래를 정성껏 피워가며 자기들의 진정을 다해가고있는것이다.

그중에서도 연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이 더욱 그러하다. 이곳 동포들은 녀사께서 고향땅인 조국의 회령을 떠나 어린시절을 보내시였고 혁명의 큰 뜻을 품으신 곳인 연길현 부암동(당시) 옛집터와 위대한 수령님과 녀사께서 처음 만나시였던 삼도만에 진달래를 정성껏 심고 가꾸고있다. 사실 연길현 부암과 삼도만은 깊은 골짜기에 자리잡고있어 이곳으로 오르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이곳 동포들은 그에는 아랑곳없이 하루에도 여러차례나 이곳을 오르내리며 진달래를 정히 심고 가꾸고있다. 그리고 진달래를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주변에 심기 위한 사업을 해마다 정성을 다하여 진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과 만수대 언덕 그리고 대성산혁명렬사릉과 회령시에 모셔진 녀사의 동상주변 등 조국땅 여러곳에서 이들이 심은 진달래가 아름답게 피어나고있다.

정말이지 그 나날 자기들의 진정이 담겨진 진달



불멸의 꽃을 피워가고있는 재중동포들

래를 정히 심고 가꾸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를 부르던 연변조선족문화관 관장과 황영애,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위원장 김영녀와 김연주, 김승걸동포들을 비롯한 동포대중의 모습을 참으로 잊을수 없다.

그뿐이 아니다.

동포들속에는 자기 예술단이름을 단동진달래예술단으로 짓고 진달래를 주제로 한 작품창작에 온갖 심혈을 다해가는 박동국단장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예술단에 많은 방조를 준 단동조선족기업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재중동포들



협회 부회장 리영호동포, 조국에 진달래를 보낼 때마다 더 아름답게, 더 오래오래 피우려고 식물원들을 찾아다니며 귀중한 시약들을 구해오던 장춘예술단 관장 황해월, 리응수, 리상호동포들, 진달래꽃을 가슴에 안고 달려와 노래부르던 최경호, 박흥철동포들의 감동적인 모습도 있다.

진정 그들의 가슴속에는 오직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함모의 한 마음만이 짙 차있었고 그것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었다.

주성희

상 식

우리 나라의 만과 반도

조선은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다. 이로 하여 조선동해안과 조선서해안, 조선남해안에는 만과 반도들이 많으며 연안에 크고작은 섬들이 널려져있다.

북동-남서방향으로 긴축을 가진 타원형의 바다인 조선동해는 굴곡이 비교적 단순하다. 조선동해안에는 동조선만, 조산만, 라진만, 경성만, 홍원만, 함흥만, 원산만 등 수십

개의 만들이 있으며 호도반도를 비롯한 반도들도 있다.

조선과 중국사이에 육지길이 우물러들어가는 큰 만과 같은 바다인 조선서해의 해안선은 길고 복잡하며 미세기차가 매우 심하다. 조선서해안에는 서조선만, 대동만, 해주만, 룡연반도, 강령반도를 비롯하여 만과 반도들이 류달리 많다.

조선남해는 조선동해와 조선서해,

필리핀해, 중국남해와 잇닿아있는 태평양북서부의 비교적 얕은 연해의 하나이다. 조선남해안에는 진해만, 순천만을 비롯한 수십개의 만들과 해남반도, 장흥반도, 고흥반도, 통영반도, 려수반도 등 여러 반도들이 있다.

만안은 파도의 작용을 적게 받므로 항만과 양어, 양식장으로 널리 쓰이고있다.

* * *

소사하의 숲은 노래하네

내 얼마나 그려봤던가
내 얼마나 오고싶었던가
옛날처럼 들어오던 소사하
책에서나 보던 소사하
강반석어머님 발자취 스민 소사하

내 오늘 소사하를 찾으니
정다운 어머니
아들딸 마중하듯
저 푸른 숲속을 헤치며 오는
우리 총련일군들 반기여주시네
80여년전 그날처럼



소사하의 푸른 숲이어
말하여다오

별무리 항일혁명가들의
어머니되시여
투사들의 어깨를 다독여주시며
하루빨리 왜적들을 쳐부시고
나라를 찾아야 한다고
격려의 말씀하시던 그 모습

그날의 어머니모습
그날의 어머니모습
오늘도 간직하고있는

조선의 새벽
조선의 태양
항일의 전설적영웅
우리 민족의 천출명장을 낳아
키우신
혁명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

김일성장군님을 따라나선

내 조국의 수천만 아들딸들
한품에 안아주시던 강반석어머님
어머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내 조용히 귀기울이노라
그러면 백두산기슭의 소사하
그 푸른 숲의 노래소리
들려오누나
백두밀림의 설레임처럼
백두의 우뢰처럼

아!
내 나라 력사와 더불어
어머님의 업적은 영원하리라
강반석어머님의 숭고한 념은
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라

소사하의 푸른 숲은 노래하네
백두밀림은 노래하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장 한길수

상 식

고구려사절의 중앙아시아행차

1965년 우즈베키스탄의 싸마르칸드시 북쪽교외에 있는 옛 시가지인 아흐라샤브 도성지의 중심부에서 발굴된 궁전터의 화려한 벽화에는 여러 인물과 함께 2명의 고구려사절이 그려져있는것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꼭대기에 2개의 새깃이 꽂힌 둥근 고구려의 판리모자인 절풍을 썼고 소매가 길고 넓으며 무릎까지 내려오는 띠를 맨 누런색저고리에 가랭이가 비교적 넓은 바지를 입었으며 끝이 약간 쳐들린 코신을 신었다.

그들은 허리띠에 고구려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던 고리자루건칼(환두대도)을 차고 가슴앞에 모아친 두손을 소매안에 넣고 앞쪽을 바라보며 서 있다.

이들은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전쟁이 벌어지고있던 650~660년대에 다른 나라들과의 우호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돌궐족이 있던 당나라 북쪽의 몽골대초원과 광활한 고비사막, 알타이산줄기를 넘어야 하는 자연조건이 매우 불리한 수만리의 긴

로정을 거쳐 싸마르칸드로 갔다고 추측된다. 이것은 이 시기까지 조선사람으로서 가장 먼 외국여행을 한것으로 알려졌던 신라의 중 혜초가 8세기 20년대에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으로부터 인디아까지 갔다온것보다 반세기전에 먼 여행을 한것으로서 우리나라 중세대의관계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역사적거사이며 통이 큰 고구려사람들의 대담무쌍한 행동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례이다.

* * *

인상기

불멸의 꽃



나는 고국에 처음 온다.
미술가로서 조선미술에 대하여 연구해온 나는 이번에 평양에서 광명성절경축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나는 선대수령의 탄생일을 그렇듯 뜻깊게 경축하는 고국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운데서도 제일 놀라운것은 김정일화축전이였다. 나는 그렇게 훌륭한 꽃축전을 처음 본다. 축전에는 수많은 단위들이 아름답게 피운 김정일화를 가지고 참가하였는데 개별적으로는 나어린 학생들까지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절절히 흠모하는 고국인민들의 그 순결한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결하였다.

답고 고결하였다.

고국인민들뿐이 아니였다.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과 국제기구성원들,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축전에 참가하고있었다.

절세의 위인들을 그리며 그토록 황홀하고 훌륭한 꽃축전을 펼쳐놓고있는 고국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모습은 나에게 이 모든것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을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게 하였다. 그러느라니 주체사상이라는 기둥에 하나로 뭉친 고국인민의 모습이 안겨왔다.

나는 생각하였다. 만일 정신을 계량하는 단위가 있다면 자기의 수령을 그렇듯 열렬히 흠모하는 고국인민들이 지닌 정신력이 제일 값높으리라고.

아름답고 뜻이 깊은 꽃은 후세에도 면면히 전해질것이다.

정녕 김정일화는 우리 민족과 더불어 영원히 피어 향기를 풍길 불멸의 꽃이라고 본다.

중국 베이징시 리산호

조국의 백찬 현실을 대할 때면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혁하는 조국의 모습을 대할 때면 나는 조선민족된 긍지를 가슴뜨겁게 느끼곤 한다.

그래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발간하는 《백두-한나》잡지에 우리 조국에 대한 글을 자주 올리고있다.

뜻깊은 2월 조국에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공적으로 쏘아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나는 너무 기뻐 그 마음을 단숨에 글로 써서 총련합회본부에 보내였다.

그러느라니 오늘의 이 경사를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갈마들었다.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쪽잠에 취기밥을 드시며 선군의 길을 걸으시였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국을 정치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

그때 우리 조국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선군의 길을 걷지 않았다

면 오늘 강국의 지위에 대해 생각이나 할수 있겠는가.

지금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피뢰패당이 우리 공화국에 대해 《제재》요 뭐요 하며 못되게 놀고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신다.

백두산의 기상과 담력,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그이를 모시여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며 우주에서는 우리가 만든 위성이 도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나는 우주를 정복해가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가슴에 새겨안고 우리 동포들이 조국을 더 잘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을 많이 쓰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련시지부 윤영화



총석정의 부부바위

예로부터 관동8경의 하나로 불리운 총석정은 강원도 통천군 통천읍 바다기슭에 있는 명승지이다.

돌기둥들이 무리로 또는 홀로 수정같이 맑은 바다물속에 뿌리를 박고 선 모양이 하도 기묘하고 신비로와 이 고장 사람들은 총석정을 《통천금강》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옛날 유능한 석공들이 오랜 기간 품을 들여 다듬어서 더러는 묶어서, 더러는 몇개씩 세워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는바 총석정아래에 의 좋게 서있는 두개의 총석-부부바위전설도 있다.

옛날 총석정뒤 양지바른 언덕 밑에 10여호의 농가가 있는 오붓한 마을이 있고 마을의 외진 곳에서 한 부부가 살았다.

그들부부는 의가 좋지 못하였다. 서로 트집걸기 좋아하고 말다툼으로 나날을 보내었다. 그래서 그들부부는 끝내 헤어지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제가꿈 자기 보따리를 이고지고 집을 나서 총석정 언덕에 올라섰다. 거기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마을도 집도 어쩐지 정다워보이였다.

그러나 모진 마음을 먹었던 만큼 오솔길에서 남과 북으로 헤어져야 했다.

그들이 헤어져 몇걸음을 떼 순간 바다에서 찢쩍 얼음터지

는 소리 같은것이 나더니 《계 멈추어섰거라!》 하는 목소리가 퇴성벽력처럼 울려왔다.

놀라서 돌아보니 부부바위가 대노하여 서있었다. 남편바위는 안해를 향해 섰고 안해바위는 남편을 향해 섰다. 그리고 제각기 하는 말이 《당신네들이 그렇게 의가 나쁘다 하니 오늘부터 나와 사는것이 어떠하오?》라고 묻는것이였다.

의가 나빴던 부부가 의아한 눈으로 바위를 쳐다보는데 어느덧 안해앞에는 호걸미남이, 남편앞에는 천하절색의 녀인이 다가서는것이였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였다. 서로가 상대방이 다정한 사람으로 안겨왔다.

그들은 부부가 될것을 약속하고 정든 마을로 돌아왔다.

그날밤 그들은 새살림을 펴고 지냈는데 날이 밝아 깨어보니 상대는 제 남편, 제 안해였다.

서로 의아해 쳐다보는데 부부바위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듣거라! 부모가 정해준 배필은 하늘이 맺어준 배필이니 의 좋게 살아가면 천복을 받게 될지어다.》

그날부터 사이가 나빴던 부부는 괴로움도 기쁨도 함께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 * *

남성들의 민족옷-바지저고리



예로부터 전해져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옷차림문화에는 남성들의 바지저고리도 있습니다.

봄계절의 아름다움이 완연한 평양의 거리마다 갖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울 때 조선옷차림을 한 신랑신부들의 모습은 마치도 비단우에 꽃을 더한것처럼 이채를 띠고있습니다.

조국의 남성들속에서 바지저고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오늘날 이것은 우리의 초점을 모았습니다.

얼마전 우리가 보통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상록상점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손님들의 요구에 맞게 바지저고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있었습니다.

상점에 진렬한 여러벌의 바지저고리들을 애인인듯 한 처녀와 함께 세심히 살펴보던 한 청년이

《저는 머지않아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첫날에 입게 될 바지저고리의 천종류와 색깔, 형태까지도 모두 곧 안해가 될 이 동무의 마음에 들어야 할텐데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것이였습니다.

보통강구역 신원동에서 산다는 한 중년녀성이 그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얼마전에 저의 시아버님이 일흔번째 생일을 맞으며 이곳에서 바지저고리를 새로 만들어 입었는데 아버님이 10년이 아니라 20년은 더 젊어보여 온 집안 식구들의 기쁨을 자아냈습니다. 이제는 저의 남편도 바지저고리를 만들어 입겠다고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곳 조선옷 봉사자들에게 인사도 할겸 우정

들렸습니다.》

그들의 말을 만족한 웃음속에 듣고있던 상록상점 지배인 리혜경은 바지저고리에 대한 인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가니 미처 그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다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바지저고리를 처음 만들 때에는 남성들의 체격에 따르는 여러 설계안을 내놓기 위해 고심도 하였고 민속학연구사들을 만나 조선옷의 우수성에 대한 깊은 리해를 가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게 흘러갔습니다.

바지저고리는 고조선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 말기까지 존속되어온 민족옷입니다. 옷구성은 조선남성들의 체질과 우리 나라의 기후에 맞게 바지와 저고리, 겹옷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삼국시기의 기록들에서는 옷옷을 《위해》, 《단의》, 《삼》, 《유》라고 하였습니다. 옷옷을 《저고리》라고 부른것은 조선봉건왕조시기부터 인것 같습니다. 남 자 저 고 리 는 깃, 섶, 동정, 고름이 달린 점에서는 녀자저고리와 다름없으나 길이가 길고 품이 넓은 점에서



구별되었습니다.

남자들의 아래옷인 바지는 가랭이가 넓은데 가랭이끝을 여미고 대님을 매였습니다. 남자겉옷에는 두루마기, 창옷, 도포, 마고자와 같은것이 있었는데 시대에 따라서도 달랐고 더우기 계급적신분에 따라 각이하여 그 종류와 형태도 여러가지였습니다.

지금 조선옷제작자들은 슬기로운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옷설계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와 인민들의 미감에 맞게 그리고 활동상요구에 맞는 품여유를 주는 문제 등 조선옷제작에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나이와 체질, 옷을 입는 목적에 따라 천의 종류와 색깔선택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고있습니다.

하여 오늘 로인들의 바지저고리와 달리 청년들의 바지저고리는 바지의 품을 조절하여주고있으며 겹옷의 모양도 개선되고 옷의 색깔은 녀성들의 치마저고리와 잘 어울리게 연분홍빛, 하늘빛 등 은근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밝고 우아한 색을 택하고있습니다. 바지저고리감으로는 광택이 나는 비단으로 하여야 고급한미를 한껏 살릴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조선옷을 곱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있는 신랑과 신부가 자기의 아들과 며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는 동포여러분도 틀림없이 우리 조선민족옷차림일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들을 눈앞에 그려보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 옥

조선의 권법에 대하여 (2)

천년강국으로 세상에 자랑떨친 고구려.
고구려가 그렇게 강대하게 된것은 군사와 무술을 중시하고 무술을 배우는것을 남자의 의무로 여긴 유명한 상무정신이 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 상무정신과 기풍은 권법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었다.

무덤벽화를 통해본 고구려권법

고조선에서 발생하여 3 000년동안 내려온 권법은 고구려에 그대로 이어졌다.
고구려사람들은 선행한 활쏘기, 칼쓰기, 창쓰기 등 모든 무술체육을 종합하여 분야별로 체계화하고 발전시켰다.

권법도 마찬가지로 치기와 차기, 막기의 세가지 기본요소, 기본동작을 다 갖춘 매우 높은 기술수준을 전제로 하는 무술체육의 한 종목으로 발전하였다.

고구려무덤벽화의 인물풍속도가 그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안악3호무덤(고국원왕릉) 앞칸 동쪽벽의 그림과 춤무덤의 권법그림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안악3호무덤의 벽화에는 두명의 힘장사가 서로 마주서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권법경기의 한 장면이 그려져있다.

왼쪽장사가 왼손을 내리고 오른손을 머리에까지 쳐들고 공격자세를 취하고있는것이 분명한데 당장이라도 오른손으로 내려치거나 오른발로 올려칠 자세이다.

안악3호무덤 앞칸 동쪽벽에 그려진 권법그림



오른쪽장사는 상대편을 곧바로 보면서 오른손을 앞으로 비껴 내민것이 상대방을 견제하거나 막기 위한 자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두 장사가 한결같이 자세를 낮추고 다리를 넓게 벌린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보아야 권투와 같이 손만 쓰는 운동자세가 아니고 손과 함께 발을 쓰기 위한 자세이다.

춤무덤에 그려진 벽화에는 두명의 장사가 막 부딪치려는 순간이 박력있게 그려져있다.

오른쪽장사는 허리를 낮춘 자세로서 오른다리 무릎을 굽히고 발꿈치를 들어올려 발가락으로 가볍게 서다실이 하였으며 동시에 왼다리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얼굴은 곧바로 들고 왼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동시에 오른손은 상대방을 칠수 있게 거드랑이까지 끌어당겼다.

이 오른쪽장사의 모습은 왼다리발길질을 하면서 편이러 오른손주먹질도 하려는 자세이기도 하고 주먹질과 함께 오른다리무릎을 굽히고 발꿈치를 들어올린 모양이 발길질태세로도 보인다.

왼쪽장사는 두손을 벌리고 상대방을 향해 날아 들어가려는 자세이다.

왼손은 앞으로 쪽 뻗었으나 오른손을 약간 끌어당겨 주먹이 우로 가게 꺾은것이 마치도 상대방의 날아들어오는 주먹이나 발길질을 내리치려는 자세인것 같다. 그러면서도 무릎을 굽히고 오른다리를 뻗친것이 오른다리발길질을 준비하는것 같기도 하다.

춤무덤의 이 벽화는 공격해오는 왼쪽장사를 오른쪽장사가 방어하는 권법경기장면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고구려시기 권법이 발길질까지 겸하고있었던것은 고구려사람들의 체질적인 특성과 관련된다.

산이 많고 산세가 험한 강토에서 살아온 고구려사람들은 팔힘이 셀뿐 아니라 그에 못지 않게 허리와 다리 힘이 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달리기를 잘하고 동작이 재빨랐으며 모든 움직임이 쾌기있고 날파람이 있었다.

이러한 고구려사람들의 체질적, 체격적특성이 권법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아리랑》과 라운규



라운규(1901년-1937년)는 1920년대에 활동한 영화연출가, 배우이며 영화문학작가이다.

함경북도 회령군(당시) 회령읍 의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소년시절부터 문예작품을 탐독하였으며 연극씨클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1919년에 3. 1운동에 참가하였으며 그후 1년남짓한 기간 머슴살이를 하고 북만일대와 연해주지방을 류랑하였다. 1920년대에 조국으로 돌아왔으나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1년반동안 감옥생활을 하였

다. 감옥생활은 라운규의 사상적각성을 더욱 촉진시켰으며 그는 비로소 모순에 찬 당대 현실을 맞받아나가고려고 마음먹었다. 이때에 그의 대표작인 《아리랑》이 구상되었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신극단 《예림회》에 들어가 북간도일대로 순회공연도 하였다. 부산에서 《조선키네마》에 들어간 때부터 그의 영화창작활동이 시작되었다. 영화예술에 대한 포부가 컸던 그는 독자적으로 영화를 만들 결심을 품고 예술영화 《아리랑》을 만들었다. 그는 이 영화의 영화문학뿐아니라 연출도 하고 주역도 맡아 수행하였다.

예술영화 《아리랑》은 반일 감정이 높고 민족적색채가 짙은 영화의 하나이다. 또한 그는 영화문학뿐아니라 연출도 하고 배역도 맡아 수행하면서 예술영화 《풍운아》, 《잘 있거라》, 《빙어리 삼룡이》 등을 편이러 내놓았다. 1930년대에 그는 연극 《철도공부의 죽음》을 비롯하여 예술영화 《홍염》, 《리순신장군》 등과 같은 비교적

경향성이 좋은 작품들도 창작하였으나 《아리랑후편》, 《아리랑3편》 등과 같이 그의 초기작품인 《아리랑》에 비하여 사상 예술적으로 뒤떨어진 작품들도 만들었다.

그는 예술영화 《아리랑》을 개작하면서 록음장치도입에 성공함으로써 무성영화를 발성영화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하는 등 우리 나라 영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였다.

10여년의 짧은 창작기간에 그는 18편의 영화문학을 창작하고 20여편의 영화를 연출하였으며 25편의 영화에 주역으로 출연하였다. 그의 작품들에는 모순에 찬 당대 사회의 암담한 현실과 일제의 군사적통치에 대한 조선인민의 증오와 항거의 정신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향이 반영되어있다.

라운규는 우리 나라 민족예술영화의 창시자의 한사람으로서 영화문학작가, 연출가, 배우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보여준 진보적영화인이다.

* * *

상 식

왜 사람이 잠잘 때 빨리 크는가

어렸을 때 성장호르몬이 부족하면 난쟁이로 되고 반대로 많이 분비되면 키작다리가 된다.

낮에는 성장호르몬이 비교적 적게 분비되고 잠잘 때에는 많이 분비된다.

어린이가 깊이 잠잘 때에는 피속성장호르몬의 농도가 급속히 높아지는데 잠든 다음 1시간후에는 성장호르몬분비가 최고에 이르러 낮보다 5~7배나 더 많아진다. 그러므로 애기들을 충분히 재우면 키를 빨리 크게 할수 있다.

본사기자 전 민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6)

- 칠성문 -

이번에 우리는 고구려시기 평양성 내성의 북문인 칠성문으로 향하였습니다. 칠성문은 모란봉에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주체 35(1946)년 3월과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찾으신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있는 칠성문을 깊은 감회속에 돌아보았습니다.

칠성문은 6세기 중엽에 처음 세웠는데 그후 고려때에 고쳐 짓고 1711년, 1764년에도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칠성문이란 이름은 북두칠성쪽에 있는 북문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문은 성벽의 연장으로 되는 축대와 그우에 세운 문루로

되어있으며 량쪽성벽을 약 10m쯤 사이를 두고 어기게 쌓고 그 두 성벽사이를 이으면서 가로 세웠습니다. 이 성문에서는 한쪽성벽을 성문앞쪽으로 내밀어 쌓고 그끝을 보강하여 웅성(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문앞에 여러가지 모양으로 둘러막은 성)으로 리용하였습니다.

축대는 다듬은 돌로 정연하게 쌓고 거기에 무지개문길을 냈습니다. 축대우에 성가퀴(성우에 쌓은 낮은 담)를 쌓고 문루를 세웠습니다. 문루는 정면 3칸(7.38m), 측면 2칸(4.36m)의 홀처마 합각집입니다. 문루는 규모가 작은 편이나 구조가 간결하면서도 밀부분의 복잡한 구조와 잘 어울리어 위엄있게 보입니다.

문루의 바깥쪽으로 돌아가면

서 세운 흘림기둥은 가운데간을 넓혀 중심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운데간에는 마루를 깔았으며 집안은 통천정으로 하면서 시원히 띄워놓았습니다.

건물에 화려한 모루단청을 입혀 그 품위를 높이였습니다.

칠성문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조선인민의 자랑스런 투쟁의 력사가 깃들어있습니다. 인민들은 1010년 이 성문앞에서 우리 나라에 침입한 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으며 임진조국전쟁시기에는 칠성문으로 맨 먼저 쳐들어가 평양성을 일시 강점하였던 왜적들을 격멸소탕하였습니다.

오늘 칠성문은 근로자들을 애국주의로 교양하는 장소로,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습니다.

본사기자 한신애

고 화

《 산 수 도 》

앞에는 나지막한 산과 잔잔한 물이 있으며 그 멀리로는 짙은 구름에 휘감긴 높은 산이 우뚝 솟아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걷고 맑게 개인 아침풍경을 묘사한 《산수도》는 15세기에 활약한 화원인 최숙창(?)이 그린 그림이다.

* * *





박연폭포 본사기자 박창복

꺾이지론듯 한 벼랑과 사망에 병풍처럼 둘러선 층암절벽에 안기여
있어 더욱 절경인 박연폭포에 어느덧 봄이 왔다. 진달래, 철쭉, 살구,
물매꽃들에 물친 폭포가 아름다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저도모르게 멈추게 한다.